

# 사회적농업 공동 연수

공동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적농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수입니다.

**대상** 2020년 이후 선정된 농장 대표와 실무자 우선 / 희망농민

**인원** 회당 40명, 각 거점농장에 신청 (4월 8일까지)

날짜	주제	전체공동	주제공동	주제의 실제 워크숍	장소
		10:00~12:00	13:00~15:00	15:00~17:00	
04.21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안병은 (행복농장 이사장)	김정섭 박사 (농촌경제 연구원)	행복농장 좌장	대철회관 (daechoul.or.kr)
04.28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김태명 (하람사무국장)	콩세알 좌장	오송 CV센터 (kbiohealth.kr/cnv/ 중회의실)
05.12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	여민동락 좌장	
05.19	청년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정민철 박사 (협업농장)	청년마을 좌장	
05.26	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 박사	조미형 박사 (함께하는 연구 협동조합)	여민동락 좌장	

## 강의 내용

전체공동  
사회적농업의 역사, 개념, 전망

주제공동  
각 주제를 사회적농업으로  
실천할 때 고민 해야할 문제들

주제의 실제 워크숍  
각 주제를 실천한 선진 농장  
대표들과의 대화 중심 워크숍

## 참 가 비 무료

**기 타** 모든 농장은 1회 이상 참가 필수  
중복 참가 가능

**참가신청** 제공양식(사회적농업 단체 카톡방)에  
기입하여 4월 8일까지 각 거점농장에 제출

**주 소** 대철회관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8길 61  
오송 CV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

# 목 차

1. 연수개요	003
2. 사회적농업이란 (김정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05
3. 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 (조미형 - 함께하는 연구 협동조합)	041
4.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실천 사례	
1) 땡큐베리팜 사례	055
2) 청년마을 사례	077
5.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소개	097
6.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가입신청서	105
7. 메모장	107

# 사회적농업    공통교육 과정

## ■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기초과정

■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기초과정						
취지	사회적 농업 농장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농업 활성화					
목적	* 다양한 사회적농업의 실천에 따른 공통된 사회적농업의 정체성 확보 * 사회적농업 공통교육과정 확보 * 당사자 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사회적농업협회 역량강화					
대상	2020년 이후 선정된농장 대표와 실무자 우선, 희망농민					
인원 회당	40명, 각 거점농장에 신청					
교육 실제	날짜	주제	전체공통 10시~12시	주제공통 13시~15시	주제의 실제워크숍 15시 ~ 17시	장소
	4.21	정신장애와 사회적농업	안병은 (행복농장이사장)	김정섭박사 (농촌경제연구원)	행복농장 좌장	대철회관 (daechoul.or.kr)
	4.28	발달장애와 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김태명 (하람사무국장)	콩세알 좌장	오송 cv 센터 ( <a href="http://kbiohealth.kr/cnv/">kbiohealth.kr/cnv/</a> ) <u>중회의실</u>
	5.12	노인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김영란 (목포대교수)	여민동락 좌장	
	5.19	청년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정민철박사 (협업농장)	청년마을 좌장	
	5.26	아동문제와 사회적농업	김정섭박사	조미형박사 (함께하는 연구 협동조합)	여민동락 좌장	
강의 내용	*전체 공통 : 사회적농업,역사, 개념 , 전망, 강사- 김정섭박사 *주제 공통 : 각 주제를 사회적농업으로 실천할 때 고민해야할 문제들 *주제의 실제 : 각 주제를 실천한 선진 농장 대표들과의 대화중심 워크숍 주제공통 강의자+좌장농장에서 섭외한 전문가와 참가자 질의 응답방식					
참가비	무료					
기타	모든 농장은 1회이상 참가 필수 , 중복 참가가능					
주관	주관: 청년마을                      주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장소	대철회관(daechoul.or.kr) 대전 복합터미널 근처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678길 61 오송 C&V 센터( <a href="http://kbiohealth.kr/cnv/">kbiohealth.kr/cnv/</a> ) <u>중회의실</u> <u>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23</u>					
참가신청	제공양식(사회적 농업 단톡)에 가입하여 4월8일까지 각 거점농장에 제출					

## ■ 사회적농업 전체 공통 교육 심화과정

주관 : 거점농장 및 선구농장

내용 : 주관농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농업 주제

형식 : 주제와 주관농장에 맞는 형식

횟수 : 3회 차 이상

참가자 : 사회적농업 실천하고 있는 농장이나 개인



# 사회적 농업의 기초 이해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배경

- 정부는 2018년부터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정책을 추진해왔다.
  -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개념화하고 정책 영역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이란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출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 등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실천”(Iacovo and O’Cnornor, 2009: 11)이라고 정의한다.
  -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할 때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 등 세 가지 실천 유형의 맥락을 식별할 수 있다”(김정섭 외, 2017: 8-9)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회적농장’과 사회적 농업 실천을 지식·정보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점 사회적농장’을 선정해 주로 경상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영농활동과 농장활동에 바탕을 둔 돌봄(care) 등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뒤따르며, 따라서 ‘사회적 농업 확산’을 꾀하는 데에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 농촌 지역사회(communitiy)의 다양한 구성원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도움(돌봄, 교육 일자리 등)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적 농장을 매개로 포용하는 집단적 움직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 그 같은 관점은 현행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형성된 초기(2018년)에도 수용되었고, 사업지침에도 일부 반영되었으나 충분치 않다.
  -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려는 농업인, 사회복지단체 등의 협력 연결망을 구축하려는 정책사업(충청남도 등)도 이제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다.
- 국내에 알려진 외국의 사회적 농업 정책도 ‘지역사회’를 사회적 농업 실천의 주체이자 장

소로 간주하고 활용하는 방식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일자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케 하고, 그 사회적 협동조합에 노동, 복지, 농업 분야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농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Kerry County)에서는 유럽연합의 지원하에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거주인구 15만 명 규모의 케리 카운티 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농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는 발달장애인 등을 연결시켜 주며, 전체 활동을 조율하는 전담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두어 사업을 관리하게 하였다. 이 같은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직화하였고, 아주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Crowley 외, 2017).
- 한편, 돌봄농업이 하나의 부문(sector)으로 인지되는 네덜란드에서는, 지역사회-기반이라기보다는 개별 영농단위(주로 농가)가 각기 치매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의 관련 정책추진체계가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각국의 복지정책 추진체계가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아일랜드의 상황이 한국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령, 네덜란드가 사회적 농장 단독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가능한 것은 농가의 재정규모가 비교적 크고, 보건복지정책에서는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 및 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 한국에서는 최근들어 읍, 면, 동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구자인 외, 2020), 그 같은 관점의 실천 사례가 소개되기도 하였다(김정섭 외, 2019).

-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농촌발전 정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주로 행정리 수준의 지역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사회적 농업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관련 영역’에서의 실천과 정책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2019년 들어서야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일명,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회가 복지정책의 대상이자 주체로서 등장할 단서가 겨우 마련된 셈이다.
- 아주 최근 들어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들이 또한 읍, 면, 동과 같은 작은 지역사회 단위의 활동에 주목하여 정책사업들을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표현에서 ‘사회’의 구체적인 실체는 ‘지역사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바,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펼쳐질 수 있게 촉진하는 정책 노력과 제도적 기반이 아주 중요하다.

## 2.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의 의미와 필요성

### 2.1. 사회적 농업 실천의 성격

○ 사회적 농업, 돌봄농업(care farming), 혹은 치유농업 등 몇 가지 용어로 개념화되고 있는 일련의 새로운 농업 실천<sup>1)</sup>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함의와 관련된 정책 추진 방향 논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척 관계 또는 비교가능한 위치에 있는 관점 논의는 세 갈래다.

- 첫째,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인가, 사회복지 실천인가?
- 둘째,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특정한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 셋째,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농업 또는 사회복지)의 하위 부문을 발전시키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지역정책(농촌발전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 사회적 농업을 농업활동이나 사회복지 실천 중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 물음에 관해서는, 적어도 유럽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모종의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그 답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활동인 동시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점이다.

- 사회적 농업이 영농활동에 바탕을 둔다는 관점은, 장소만 농장이라는 점이 다른 뿐 사회복지 기관이나 여타의 직능 단체가 수행하는 수많은 형태의 사회복지 실천 가운데 한 종류일 뿐이라는 식의 개념 부여를 거부한다. 즉, 사회적 농업 실천의 기본 주체는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그래서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의 범주 안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돌봄농업이라는 용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고 제도상으로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와 가장 긴밀하게 접합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도,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의 확산이라는 배경 속에서 설명된다(Hassink, 2017: 25-26). 사회적 농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기원한 이탈리아에서는 당연히 다기능 농업이라는 개념이 전제되며, 이는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 당국이나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가 형성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Di Iacovo and O'Connor, 2009: 21).
-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혼종성(hybridity)을 갖는 다기능 농업이다. 즉,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가능성, 즉 농장이 농장이면서 동시에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농장이면서 동시에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드러낸다(김정섭, 2018). 그런데 농업인 개인만의 행위로 그런 종류의 '-되기'가 실현되는 게 아니다. 사회적 농업은 농업인이 관계하는 농촌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사회 연결망에 녹아든 실천이다.
- 그러므로, 칼로 두부를 자르듯 확연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취약한 여건

1) 편의상, 문맥에 따라 여러 용어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 농업'이라고 통칭한다.

에 놓인 사람들을 수용한 시설 안에서 수행하는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일 수 있는 ‘텃밭가꾸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돌봄 농업은 서로 다른 두 영역, 즉 농업 영역과 보건 및 돌봄의 영역을 연결하는 과제에 도전하는 다기능 농업의 흥미로운 사례다. 전(前) 산업사회에서 농업과 보건·돌봄은 소규모 지역사회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부문은 현대 사회의 출현과 더불어 각기 분리되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로 농업 부문은 보건·돌봄 및 사회 서비스를 다양한 집단에게 제공하는 일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Di Iacovo and O'Conor, 2009). 게다가 보건·돌봄 분야 전문가나 조직이 정신질환자, 지적 장애인, 노인, 아동, 약물중독자, 장기 실업자 등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농업인이 제공케 하는 접근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돌봄 농업이 예전에는 과학적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던 다기능 농업의 한 사례가 되기에 이르렀다. 돌봄 농장은 농업 생산과 보건 및 사회 서비스를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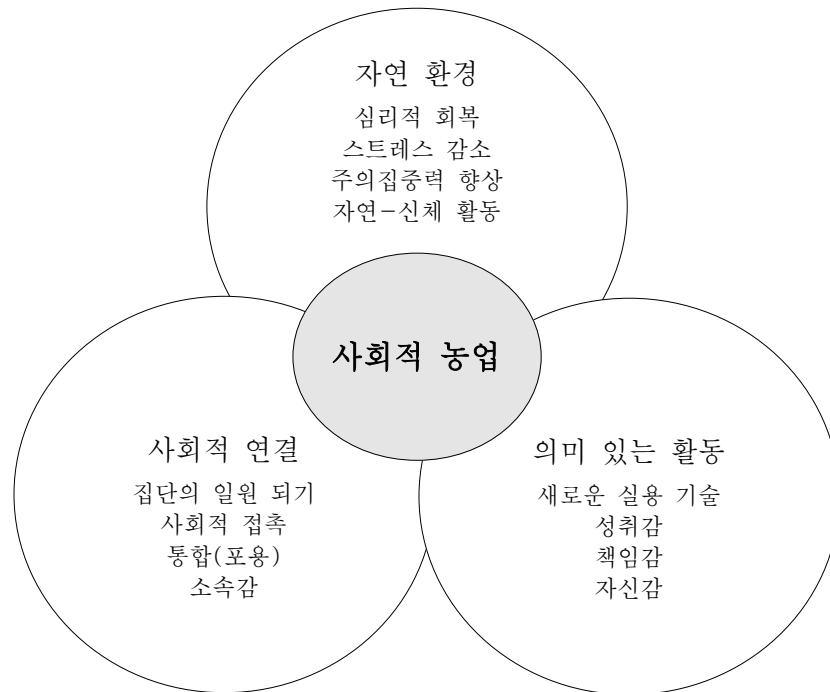
– Hassink(2017: 25–26).

○ 사회적 농업은 전문화된 기능인가, 사회적 관계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인가? 이 쟁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가져다 주는 편익(또는 효능)이 무엇인가라는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의 바탕이 되는 ‘관계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는 시각이다.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농장의 서비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는 이들에게<sup>2)</sup> 전해지는 편익이 단지 ‘농장 안팎에 있는 동식물과의 교감’ 또는 ‘자연환경과의 근접성’ 같은 요인에서만 비롯하는 것이라면, 사회적 농업은 ‘농업자원을 활용해 특정한 치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전문영역’이라고만 이해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편익은 그런 차원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적 농업 활동의 참여자(이용자) 개인의 교육학적·심리학적 변화(새로운 실용기술 습득, 성취감, 책임감, 자신감)가 가장 중요한 결과인데, 그런 결과는 활동 과정에서 농민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여러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망 안에 연결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집단의 일원 되기, 사회적 접촉, 소속감, 포용). 그래서 사회적 농업 실천을 단지 프로그램화 된 치유서비스(healing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는, 즉 ‘기능적(도구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들만이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고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일방향의 편익 제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편의상,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얻는 입장에 있다’고 썼을 뿐이다.

그림 1 사회적 농업의 세 가지 핵심 요소



자료: Social Farming Ireland(2018:  
~)

-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와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농민의 관계 구도를 세 가지 유형으로 설정해 논의해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적 농장이 단순히 진기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서만 이해되는 경우로서, 그때 농민은 ‘서비스 판매자’가 되고 프로그램 참여자는 ‘구매자’가 된다. 이는 시장에서의 거래관계에 다름없다. 이런 관계 구도에서는 사회적 농업 실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아주 많이 제약된다. ‘사회적 연결’이라는 부분이 박약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구매력’이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둘째는 농민이 참여자의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때의 관계 구도는 ‘사회복지사-수급자’의 관계가 된다. 이런 관계 설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통상적인 농민의 역량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부과하는 것이며,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참여자와 맺을 수 있는 비공식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관계의 형성 가능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장의 농민은 그저 지역사회의 주민이되 농장을 찾는 이(그 역시 주민이다)를 환대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인 관계 구도다. 이런 구도에서 ‘사회적 연결’에서 비롯되는 편익이 최대화될 확률이 높다.

어느 농촌에도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유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농업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사회적 포용이라는 가치를 구현하는 실천이라고 이해할 때, 그 사회적 편익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홍성군의 행복농장에서 유급종사자로 일하는 H씨의 사례와 경남 거창군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B씨의 사례를 들 수 있다.

H씨는 10년 넘게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에 거주했던 인물이다.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기도 한 정신장애인이다. 협동조합 행복농장이 설립되고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시설에서 행복농장을 방문하여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나중에는 인턴십 과정을 거쳐 행복농장에서 급여를 받고 주3일 근무하는 종사자가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정신장애인 요양시설을 아예 나와서 홍성읍에 임대주택을 마련해 거주하며 농장으로 출퇴근한다.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하던 과정에서 H씨에게 ‘농장에서 이렇게 일하니 좋은 점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유기농 허브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심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H씨의 대답은 ‘자유로워서 좋다’는 것이었다. H씨의 자유는 시설 안에서 거주할 때의 온갖 관리상 지침과 통제를 따르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는 자유이지만, H씨는 여전히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 즉, 스스로 정신건강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자유다. 그리고 생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나가는 것이 가능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 H씨의 자유를 가능케 했던 것은, 행복농장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여준 환대와 관계 형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H씨의 생일이 되면, 마을부엌에서 점심을 함께하는 마을 농민 등 10여 명이 어김없이 축하를 해주고, 농장과 마을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접촉하게 되는 주민들과 함께 스스럼없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H씨가 누리는 자유의 바탕이다.

B씨는 거창군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공동거주 시설, ‘월평빌라’에 살던 인물이다. 영농활동에 종사할 능력이 상당히 있는 B씨를 월평빌라에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가에 취직시켜 ‘장애인이 아닌 동네의 농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수년째 어느 농가의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몇 년 전에는 아예 주거를 월평빌라를 나와, B씨가 근무하는 농장에 딸린 집에서 살고 있다. B씨 역시 지역사회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농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B씨를 고용한 농민의 환대와 월평빌라의 사회복지사들이 보여준 끈질긴 노력이 한 사람을 지역사회에 통합시켜낼 수 있었다.

- 이상의 논의를 이어간다면,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려는 정책은 특정 부문을 육성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농촌 지역사회를 더욱 ‘포용적인 사회’로 바꾸어내는 지역 정책의 일환이 되어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농업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려던 초기 논의 단계에서,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기반 실천’인가, 아니면 특별히 전문화된 ‘직능 영역(부문)’인가를 따지는 논쟁이 있었다. 아직, 논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 스며든 포용적 실천’이어야 한다는 점에 상당한 합의가 형성된 듯하다.
- 특히,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와 깊게 접합되지 않은 아일랜드와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달체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탈리아에서 그런 관점이 강하게 주장되었다.



결론적으로, 개념 측면과 실천 측면 모두를 살펴본 우리는, 사회적 농업은 일종의 사회적 보호의 수단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제안한다. 사회적 농업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그런 돌봄이 없을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당할 수 있는 소외된 집단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편견과 차별로부터 ‘통합’이라는 보호를 제공하며, 존엄하게 생활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보호를 지향하는 다부문적이고(multisectoral)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람들은 먹거리 보장과 소득 보장 측면에서 보완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고, 고용이 가능해지며,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얻을 수 있으며, 돌봄과 살림살이 경제 영역에서 무급 또는 유급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자원 측면의 투자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배제된 주변부의 인구 집단을 낙인찍거나 차별 같은 폐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지적하기를, 사회적 농업은 서로 다른 여러 부문이나 분야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큰 도전을 직면한다. 그 도전은 농촌 발전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이 부문별로 나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부문별 접근 방법에 도전함으로써,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 사회적 포용, 지속가능성 등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지닌 농촌 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방법론적으로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한다.

- Di Iacovo *et al.*(2015: 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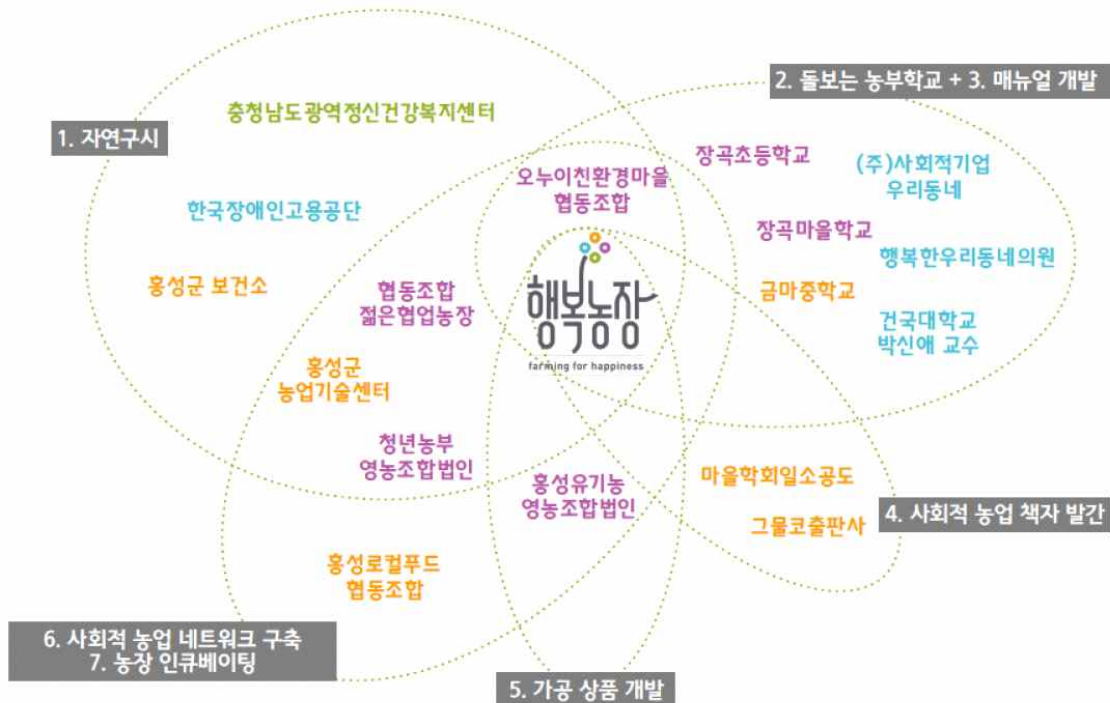
## 2.2. 지역사회-기반이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

- 사회적 농업이 지역사회에 바탕을 두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사회통합 또는 사회적 포용에 있다는 점에서 우선 드러나지만,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다.
- 첫째, 사회적 농장 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다. 네덜란드와 달리 사회적 농업 실천에 따르는 비용 혹은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대가를 공적 자금으로 지불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지 않은 한국에서, 가족농 단위의 일반적인 농가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누군가를 고용하는 데에는 농장경영상의 큰 제약이 동반된다. 한 농가가 여러 명의 참여자를 돌보거나 고용하거나 농업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개별 농업경영체가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이려면, 지역사회 안에 여러 농가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진다.
- 가령, 잘 알려진 행복농장의 경우 유기농 허브를 재배하는데, 그 판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250평 크기의 비닐하우스 4동에서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얻는 매출액은 연간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별도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횟수에 비례하여,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에 비례하여 농업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에 행복농장은 지역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매주 방문하여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12회차를 진행하였고, 약 일주일간 행복농장이 소재한 도산리에 4박5일 동안 정신장애인이 머물며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도 2회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특수반(돌봄반)에 속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도 상황에 따라 학기당 10회차 내외의 주기로 운영하였다. 그 시간만 해도 연간 수백 시간에 달한다. 행복농장에서 고용한 H씨의 급여 또한 순전히 경영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생산성에 비해 훨씬 많은 금액이 지불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정도가 행복농장이 경영수지 측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에 근접하는 듯하다.

- 둘째,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도 개별 농장으로서 많은 수의 참여자를 응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농장활동을 진행할 때에는 농민 1명이 1~3명의 장애인과 함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대체로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20명 가까이 집단적으로 농장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농장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근거리에 여러 사회적 농장이 존재한다면, 이들 참여자를 분산배치함으로써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셋째, 사회적 농업 활동에 참여할 ‘사회적 약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접촉 과정에서 사회적 농장 단독으로는 수많은 애로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 농장들 모두 지역에 있는 보건 또는 사회복지 기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적 농업’이라는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 농촌 주민들, 특히 농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보건 및 복지 관련 기관과의 접촉 기회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 직능기관과의 네트워킹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각된다.
- 넷째, 사회적 농장이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들을 소화할 인적 자원 소요는 다양하고 많지만, 사회적 농장은 그런 인적 자원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유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지역사회 내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들과의 협력관계에서만 사회적 농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내부의 협동과 연대 관계에서 확보해야 할 기능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회적 농업을 지역에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홍보 및 출판물 간행
  - 사회적 농업 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모니터링(혹은, 사례관리)
  - 현금, 현물, 노동력 등 다양한 형식의 후원
  -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획득
  -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로 확보
  -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 운영상의 여러 기능(예: 기록, 촬영, 프로그램 진행 보조, 송영, 집단 상담 등 참여자 대상 비농업 프로그램, 강의장·숙박·식당 등의 시설, 식사 제공 등)

그림 2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 다섯째,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산하려는 정책을 ‘부문 정책’이 아닌 ‘농촌발전 정책’의 범주 안에서 이해할 때, 사회적 농장은 지역사회 안에서 세 가지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때 지역사회 내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관계는 그런 기능들이 발휘되면서 지역사회를 더욱 ‘공동체스럽게’ 변화시키는 매체가 된다.
- ‘사회적 포용’이라는 이념의 확산: 지역사회 안의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고 포용하는 실천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여주는 역할
  - ‘사회 혁신’ 사례의 창출: 과거에는 관계가 없던 행위자들이 ‘새롭게 관계를 맺고,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실천’, 즉 부문 간의 칸막이를 해소하는 실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역할
  - ‘사회적 경제’ 확장의 거점: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행위자들이 협동과 연대를 바탕으로 조직화되고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기능

### 3. 지역사회-기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성과와 과제

- 정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sup>3)</sup>이라는 명칭의 보조금 정책사업을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두 가지로 서술되어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목적에서 제시한 내용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지역사회-기반’이라는 원칙을 견지해왔음을 보여준다.
  - 첫째,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한다.
  - 둘째,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
- 이 사업의 예산 세목은 ‘지자체경상보조’이며, 개소당 연간 6,000만 원을 보조한다(국고 70%, 지방비 30%).
  - 2018년에 9개소, 2019년에 9개소, 2020년에 12개소, 2022년 현재 80여 곳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전제로 사업을 계획하게끔 지침에 명시해두었다.
  - 실제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30개소의 사업 대상지 모두 ‘계획’에는 협력 네트워크에 포함시킬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의 행위자를 명시하였다.
  - 30개의 사회적 농장이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로 계획한 대상 기관 또는 단체는 총 199개로, 평균 6.7개의 기관·단체와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sup>4)</sup>
  -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기관 및 단체 중에 사회복지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돌봄, 고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 사업내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이 같은 네트워크 형성 양상은 현재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농장들이 우선은 농장활동 참여자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서부터 출발해 지역 내 네트워킹을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역사회 안에서의 협력 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이 비농업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은, 중요한 한 고비를 넘기기 시작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확산’을 목표로한다면, 향후 추진해야

3) 정확하게는,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이라는 명칭의 사업에 속한 ‘내역사업’이다.

4) 이것은 계획이고, 실제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실증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임이나 만남이 대부분 중지되는 예외적인 상황이었다는 점도 돌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사회적 농장 한 곳과 여타의 기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 여러 사회적 농장들을 육성하고 네트워킹을 이루어야 한다.
- 것처럼 형성된(또는 형성될) 네트워크가 유동적이고 비공식적인 관계에서 진화하여 일정하게 견고한 틀을, 가령 상상하자면 ‘○○군 사회적 농업 협회’ 혹은 ‘○○면 지역사회 돌봄 협의회’ 같은 방식의 명칭을 지니고 그에 걸맞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을 갖추어야 한다.
- 네트워킹, 즉 협력관계 형성에는 상당한 밀도의 교섭과 의사소통 노력이 필요하다. 그 모든 작업을 사회적 농장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연결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섭을 안내할 지역 내 조력기관을 사회적 농업의 영역으로 포섭해야 한다.

그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조력 활동을 하는 기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 농업회의소, 여성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경우에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학습이라는 두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강원도 횡성군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 주체는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이다. 이 영농조합법인은 ‘횡성군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한 연대 관계에 있었고, 그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인문학 운동을 전개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이나 로컬푸드 실천을 전개하는 ‘횡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연결될 수 있었다. 그것을 배경으로, 창의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다.

강원도 원주시의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의 네트워킹을 지원한 곳은 조례에 의해 사회적 경제 활동을 돕도록 규정되고 설치된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돌봄사업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접촉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에서는 정책사업에 참여하던 초기부터 무주군이 설치한 중간지원조직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조력을 받았다. 이 센터는 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관내의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과 사회적 농장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그 회원 조직만 40개가 넘는 전국적으로 규모가 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이면서 완주군의 농촌정책에 공식·비공식 조력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는 지자체와 파트너 관계에 있으면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곳이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처음에 기획할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비농업 부분의 발달장애인 지원 기관이나 청년 농민 단체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기 전부터 ‘익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농업 실천에 참여하도록 5개의 농업경영체를 설득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학교 등의 기관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업 신청 전에 5개 농업경영체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학습모임을 열어, 사회적 농업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등 조력자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남 거창군에서는 2020년 들어 거창군마을만들기센터가 사회적 농장인 수송대 발효마을과 더불어 지역 내의 농업인,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여러 행위자들과 네트워킹하고 학습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이 연결망에는 거창군농업회소도 긴밀하게 관여하고 있는데, 거창군 농업회의소 안에는 ‘사회적 농업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교육 돌봄 고용	청년	청년농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간 농장 일정을 수립하고 하루 4시간 실습을 통해 전통농법을 익히고 먹거리 자급 학습 프로그램 개발</li> <li>주 3회, 하루 4시간 공유지에서 농사실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공동체연구소(네트워크와 사업운영 노하우)</li> <li>제천간디학교(농사 작업장과 농업 교육 마을 연계 프로그램)</li> <li>누리꿈터덕산 지역아동센터(월 2회 농사 체험 프로그램)</li> <li>참좋은곳간(청년농촌정착 프로그램 위탁, 직판장, 소평물 공유)</li> <li>먹거리나눔협동조합 파릇(생산물 판매 및 협동조합 참여)</li> <li>덕산초중등학교(초/중/유치원생 농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li> <li>월악산 힐링푸드(6차 산업과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li> <li>교통대 디자인과(디자인 작업장 참여와 지도)</li> <li>건국대 링크플러스사업단(농도상생청년 교류)</li> </ul>
			간디학교 농사작업장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천 간디학교 6명을 대상으로 작업장 농사 및 농산가공품, 농사체험 기록, 마을활동 체험 교육을 통해 농사와 마을에 대한 이해도와 친밀성 제고</li> </ul>	
			마을 배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청년이 희망하는 것을 찾아 자신을 일로 만들어 작업장으로 연계(16교실 각각 6강좌)</li> <li>영상, 독서, 영어수다, 그리기, 목공</li> </ul>	
			진로작업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의 관심을 발전시켜 전문가로 성장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여 농촌에 정착 목표로 함</li> <li>영상미디어센터, 그림교실, 로컬푸드 음식 작업장, 디자인 등</li> </ul>	
		지역아동	지역아동 농사체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취약계층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들관 백일장, 그림 그리기 등 농사교육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 체험활동, 지역에 대한 긍정적 추억 제공</li> </ul>	
형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기타(힐링)	귀농귀촌여성	귀촌여성농업인 정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개 지역 언니네 텃밭 협업농장 운영</li> <li>귀농귀촌 희망 여성 대상 시기별 농업활동 체험 및 농사법 전수</li> <li>-귀촌여성, 다문화여성에게 농사기술전수 및 소득활동 지원</li> <li>-귀농희망 여성 농업경영체등록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성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기획 및 농업, 식생활 교육)</li> <li>영농조합법인 텃밭(농산물가공및토종농산물(콩)구매)</li> <li>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농업연계인문학교실, 힐링센터)</li> <li>형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장터 참여를 위한 교육 등)</li> </ul>
		고령농업인 (여성)	언니네 밥상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철꾸러미 농산물로 만든 반찬을 만들어 고령여성농업인 건강관리 및 말벗 활동 실시</li> <li>-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농업인 공동체 복원</li> <li>-농촌형 여성 친화 마을 조성</li> <li>-고령여성농업인 지키미 활동 등</li> <li>-전통음식스토리텔링 및 푸드심리테라피 작업</li> </ul>	
		여성농업인	제철농산물즉석가공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니네 텃밭 참여하는 젊은 여성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활동과 강사훈련을 통해 역량을 키우고 소득사업 지원</li> <li>-제철 농산물 활용 음식 판매 식당 운영</li> <li>-힐링푸드만들기, 푸드심리테라피, 무인판매대 운영 등</li> </ul>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	돌봄	고령자, 귀농희망자	지역조사 및 인식개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자원 조사, 고령자 경제활동 수요 및 돌봄 수요 조사</li> <li>사회적 농업 인식 개선 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돌봄사업 수행단체 사업연계, 연수 프로그램 등)</li> <li>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건강관리연계 운영)</li> <li>원주노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 자연계)</li> <li>성공회원주 나눔의집(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li> <li>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고령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 대상자 연계 및 생활 자립 상담)</li> <li>플라워덱트(원예치료프로그램 등)</li> <li>원주생협(협업농장 물품 판매 역할)</li> </ul>
			협업농장 시범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영농 실습 및 기술 훈련</li> <li>지역 내 복지사업 단체 연계</li> </ul>	
			농촌지역고령자 및 협업농장참여자돌봄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예치료 프로그램(6회)</li> <li>건강관리 프로그램 실시(2회)</li> <li>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6회)</li> <li>생활자립상담 프로그램(3회)</li> </ul>	
			지역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계단체 기획회의(3회)</li> <li>사회적 활동 세미나(1회)</li> </ul>	
			사례 연수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사회적 농업 사례 연수</li> <li>국외 사회적 농업 선진 사례 연수</li> </ul>	
농업회사법인 성원농장	교육 돌봄 고용 기타(힐링)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장애청소년	맞춤형 농업돌봄 및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은 체험(단기)반, 심화반 인턴반으로 편성</li> <li>단순 체험부터 네트워크농장 실습까지 구분하여 농업교육</li> <li>-단기프로그램(5~10명) 2박 3일간 연 9회 운영</li> <li>-심화프로그램(2~5명) 주 3회 28주간 운영</li> <li>-인턴프로그램(1~3명) 1년 간 12주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대상발굴, 직업평가, 사례관리 등)</li> <li>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역복지기관 또는 사회단체와 연계 지원)</li> <li>보은군농업기술센터(영농생산 기술 보급 및 강사 지원)</li> <li>귀농귀촌단체협의회(농업자문지원 및 농업행사 지원)</li> </ul>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신체건강 증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매노인반은 주간돌봄으로 맞춤형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운영</li> <li>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 재활 및 정서안정</li> <li>-공동체프로그램(과수, 원예, 식용작물수확체험)</li> <li>-개별프로그램(개별 텃밭 이용 다양한 작물체험)</li> <li>-자유프로그램(농장걷기 등)</li> <li>-보건소연계(건강관리, 검진, 건강체조/운동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은군농업인협회(농작물관매 및 교육지원)</li> <li>여성농업인회(농작물관매 및 교육지원)</li> <li>보은농업경영인단체(농작물 판매 및 교육지원)</li> <li>보은군보건소(체지방, 골격근정도 측정, 관리방안 자문)</li> <li>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우울감 측정 지원 및 사례관리 지원, 자문)</li> <li>가람회농장, 퇴종장, 소풍농장(농업체험 및 훈련지도 등)</li> <li>보은군영농후계자연협회(축산관련체험, 실습, 농장체험 등)</li> <li>보은군산림조합(보은산나물, 산약초체험, 실습등)</li> </ul>
				정서안정 증진 프로그램	
			여가문화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힐링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한 우울감 감소 등 정서기능 향상(정원 만들기 등)</li> <li>외부활동 및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li> <li>-여가문화반(도자기공예, 꽃차만들기, 원예등)</li> <li>-가족공동텃밭(장애가족 대상 공동 텃밭 조성, 가족유대증진)</li> <li>-힐링가든 프로그램(치유정원, 텃밭정원, 미니정원)</li> <li>-장애 아동청소년 농장 체험반(장애아동청소년대상수확체험및놀이기회제공)</li> <li>-농업 체험반(보은군내아이, 사과, 딸기 등 대표 작목반 체험)</li> </ul>	
농업회사법인 타나무와종이	돌봄	치매고령자, 아동·청소년	치매노인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치매 노인 추억여행 프로그램(1기수)</li> <li>초기치매 노인 기억개선 프로그램(2기수, 신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복한 요양원(치매환자 이동, 대상자 선정, 요양사 지원 등)</li> <li>상당구치매센터(치매노인프로그램자문, 개선사항 공유)</li> <li>청주시토종씨앗연구회(농장체험, 전문가사제, 청소년 프로그램 강의 자문)</li> <li>문의초중학교(농사교육 및 체험연계, 농사교육 장소 제공)</li> <li>백민구절초연구소(체험, 축제, 장소제공, 재료거래 등)</li> <li>교육청Wee센터(청소년 대상 발굴, 프로그램 추진 계획 공유 등)</li> <li>문의면사무소(주민자치 프로그램, 전시장소 제공)</li> </ul>
			아동/청소년 창의농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연과 친해지는 시간</li> <li>절기별 재료 인식 및 수집</li> <li>공예품 만들기 등</li> </ul>	
			청년 농부활동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 희망 청년 또는 활동 희망 청년 모집</li> <li>다양한 수업 및 지역문화 축제 참여, 상시교육 진행</li> </ul>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의소재 지역주민 대상 참여자 모집</li> <li>역세, 녹조 등 활용수업 진행, 공예품 만들기 등</li> </ul>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교육	장애학생	세종누리학교 농업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생들이 공동으로 영농에 참여, 텃밭 조성</li> <li>작물재배 요령, 농업 관련 교육 체험 프로그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누리학교(장애학생 교육, 이동 지원)</li> <li>성남고등학교(봉사동아리활동, 이동 지원)</li> <li>연기어린이집(참여 아동연계 및 안전관리 인력)</li> <li>놀왕리마을회(주민참여)</li> <li>세종장애인복지관(프로그램 공유 및 강사 지원)</li> <li>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li> <li>씨앗도서관협의회세종지회</li> <li>세종로컬푸드(농산물출하 및 판매)</li> <li>세종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지원)</li> </ul>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연기 어린이집 영농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절별 농업활동, 정서교육, 자연학습 기회 제공</li> </ul>	
		장애학생, 비장애 학생	장애학생+비장애학생 커뮤니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누리학교 학생 + 성남고등학교 학생 어울려 도움을 주고받으며 또래 간의 교감, 인성 교육</li> </ul>	
		주민, 장애학생, 아동	장애학생 사회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어르신과 어울리며 농촌 현실과 정서 체감 기회 제공</li> </ul>	
		장애가족	장애가족 텃밭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와 가족이 텃밭 운영, 공동체 형성</li> </ul>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교육	장애인	세종요나의 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텃밭 정원, 맞춤형 체험</li> <li>월별 프로그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 누리학교(특수학급 학생 대상 텃밭 매개체로 힐링/치유 프로그램)</li> <li>세종요나의집(돌봄, 케어, 힐링프로그램 연계)</li> <li>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연계)</li> </ul>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장애학생	세종 누리학교 특수학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텃밭 정원 직접 관리하며 정서함양</li> <li>식용화초 활용 식생활 프로그램</li> <li>황토놀이터 및 숲길 걷기 심리적 안정 기여</li> </ul>	
		다문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힐링 치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종시 다문화 가족 대상 힐링 치유의 밤 행사 개최</li> <li>전의초등학교 다문화 가족 대상 경험</li> </ul>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고령노인	노업활동 유지교육 및 돌봄연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인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거리 개발</li> <li>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li> <li>참여 노인의 일상적 관리 및 건강/정서 파악</li> <li>고령인 노동 능력에 적합한 작목과 농법 보급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민동락 공동체(사회복지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협력 등)</li> <li>의료기관(영광종합병원, 묘량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li> <li>깨움마을학교</li> <li>묘량중앙초, 송학중, 성지교(프로그램 연계)</li> <li>야생화영농조합, 태청골야생화, 영광이레농장(협력농장)</li> <li>목포대(인력교류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 협력)</li> </ul>
		아동/청소년	돌보는 농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농부(초): 교육과정 연계 생태교육</li> <li>꿈꾸는농부(중): 노작교육</li> <li>미래농부(고): 영농 활동 동행</li> </ul>	
		청년/귀농인	청년/귀농인 이주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 희망자 마을살이, 농업활동 등 이론/실습 교육 제공</li> <li>도시청년대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유, 정착지원</li> </ul>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장애청소년	무주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에 취약한 장애인 대상 다양한 농업교육 경험 및 직업경험</li> <li>반햇소농업활동(텃밭작물재배, 가공물생산직업교육등)</li> <li>해밀캠핑장농업활동(자연및농업활동, 수확및요리)</li> <li>반디농장, 딸기농장, 진원 반디길 등 협력농장 농업활동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프로그램 개발, 기획, 관리 지원 등)</li> <li>무주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장애학생/전문가연계)</li> <li>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전북지부(농가교육 및 전문가 자문)</li> <li>무주교육공동체(사회적 농업 홍보 및 프로그램 참여)</li> <li>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대상자발굴, 전문가연계 등)</li> <li>무주종합복지관(성인 장애인 참여 및 관리 등)</li> </ul>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고용	독거노인	독거노인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정/성폭력 피해자 대상 및 차량 지원 등)</li> <li>임실시니어클럽(독거노인연계, 건강 체크 관리 등)</li> <li>임실마을가꾸기협의회(산양목작 연계추진)</li> </ul>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활동 안전교육 및 원예작물 재배 일거리 나눔</li> </ul>	
		노인, 범죄피해자	원예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예치료사자격증 교육 및 지역노인정 순회 교육</li> </ul>	
		독거노인	치매 및 정서지원 문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독거노인 대상 문해교육 및 치매예방/정서지원</li> </ul>	
		청년	청년 공동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입구 꽃밭 가꾸기 활동, 원예치료 및 보존화, 공동수확</li> </ul>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귀농인, 해외이주민	농사활동 협업, 농가방문 (체험, 수확, 요리) 농업활동 및 카페, 화원, 제빵 등 다양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남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li> <li>해남교육지원청</li> <li>해남사회적기업협동조합</li> <li>해남자활</li> <li>해남신활력사업추진단</li> </ul>
		귀농인, 해외이주민	체험지도자 양성		
		해외이주민, 아동/청소년	공유 놀이터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푸드트럭 활용, 요리와 인문학 콘서트 등</li> </ul>	
		-	사회적 농업 콘테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돌봄과 자립 활동 인력 발굴</li> </ul>	
완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교육 돌봄 고용	성인장애인, 지체장애인	장애인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은혜의 동산, 완주군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협력</li> <li>치유(원예,요리), 농작물 재배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치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인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li> <li>소양인덕두레농장(고령농과 귀농인 협력 로컬푸드 농산물 재배)</li> <li>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li> <li>이랑협동조합(발달지연 아동치료사업, 다문화, 장애학생 문화교육 사업)</li> <li>청년협업농장(청년 공동농업 활동)</li> <li>은누리살이사회적협동조합(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교육)</li> <li>고산풀뿌리교육네트워크(지역교육 프로그램 실현)</li> </ul>
		독거노인	독거노인 돌봄,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내 독거노인 대상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실시 (완주군 독거노인생활관리사 24명 협력)</li> </ul>	
		귀농귀촌가족	초보(가족)농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자, 초보농, 가족농 대상 농업기술 전수, 지역사회 이해 증진</li> </ul>	
		아동, 가족	어린이 농부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족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등</li> </ul>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화답 영농조합법인	교육 고용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허브테라피 강사 양성 교육	▪ 허브가든 중심 허브원예치료, 허브상품만들기, 허브아로마테라피 등 허브 상품을 만들어 보고 반복적 훈련을 통해 강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씨앗받는농부, 경천오복두레농장, 세상을 바꾸는 밥상 등</li> <li>■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복지관 소속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li> <li>■ 세지면부녀회(지역주민 참여유도, 홍보활동 등)</li> <li>■ 나주시로컬푸드직매장(생산제품 판매 지원)</li> <li>■ 세지면보건소(프로그램 홍보 및 정보 제공, 참여자 안전 관리)</li> <li>■ 장애아동학교(덕수, 이화)</li> <li>■ 아뜰리에이화(소외계층 고용 및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 진행 시 제품 구매)</li> </ul>
		고령자, 지적장애학생	가든플래너 양성 교육	▪ 전문적 식물 재배관리, 식물 식재 및 설계, 식물 중 다양성 관리 등	
		고령자, 장애인	허브치유가든 선물가게 부스운영 및 진로교육		
		전체	사회적농업 팝파티		
항꾸네협동조합	교육	귀농희망청년	농사 및 생태환경	▪ 농사 교육 이론, 실습, 농자재 교육 및 숲 탐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곡성뚝방마켓, 구례콩장, 순천숲틈시장, 장흥마실장</li> <li>■ 항꾸네협동조합꾸러미회원</li> <li>■ 전국귀농운동본부</li> </ul>
			농촌생활기술 워크숍	▪ 농막짓기, 용접/난로만들기 등 농촌생활 기술 실습	
키울협동조합	교육	발달장애아동	돌봄, 치유농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장애이 가족 주말 치유농장(노인멘토)</li> <li>▪ 공동체놀이, 원예 치유 만들기 프로그램(이랑협동조합협력)</li> <li>▪ 사회적 농장 식재료 이용 요리 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봉 평치 두레농장(발달장애아 가족 농장 운영)</li> <li>■ 이랑협동조합(치유 대상자 선정 및 연계)</li> <li>■ 씨앗문화협동조합(지역자원, 지역살이 탐방)</li> <li>■ 지역아동센터, 보건소 등 다수</li> </ul>
		장애인 가족, 지역주민 등	장애인 가족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비장애인 인식 개선</li> <li>▪ 프로그램진행 및 어울림, 역량강화</li> </ul>	
농업회사법인 우리들의 정원	교육 고용	장애인	생산/가공/판매 장기 프로젝트	▪ 장애인 대상 허브 및 고구마 재배, 가공 학습, 기술 및 체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복지시설(훈훈한 집, 맑은 집, 꿈마루 협동조합, 맑은 집 등)</li> <li>■ 초/중학교 특수반(부송중, 금마초, 오산초, 중앙초)</li> <li>■ 원광대 원예학과, 농수산대, 전북대</li> <li>■ 지역농가(낭산다레원, 미륵사지자연학교, 옥수도에, 미륵사지야생화, 염소농장)</li> </ul>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대상 원예치료	▪ 장애인 복지시설과 협력, 원예프로그램 진행	
		영유아 장애아동	영유아 장애아동 고구마 관련 프 로그램	▪ 고구마 심고 수확 체험 및 재배과정 습득	
		청소년 장애아동	가족 텃밭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 가족 텃밭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청년 장애인	허브 프로그램 진행	▪ 다년생 라벤더 파종 및 재배, 수확/가공 방법 습득	
		청년, 장애인	허브 테마 농업프로그램 진행	▪ 허브 제품 만들기 등 진행, 정원 가꾸기, 폴리마켓 등	
농업회사법인 엘로우창농	교육 돌봄 고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농업현장 프로그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군 청소년 상담센터 청소년 대상</li> <li>▪ 파수, 채소, 식량작물 협력농장 재배 활동 실시, 팝파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성청소년상담센터(청소년 관리 및 지도)</li> <li>■ 아이소라체험농이교육원(농장 프로그램 실습 및 개발)</li> <li>■ 퍼니팜스(농촌 자원 활용 전문가 육성)</li> <li>■ 행복을팍농장(농산물 가공 및 판매 방법)</li> </ul>
청송헤프는농장 농업회사법인 (주)	교육 고용	귀농희망청년	청춘상상랩 수익모델 활성화	▪ 수익모델 및 공동체 활성화 모델 구체화, 상품 브랜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대 영농창업특성화사업단</li> <li>■ 창양리새마을회, 현동면보육센터, 가원마을 경로당</li> <li>■ 청송군교육지원청, 문화센터보건소 등</li> </ul>
		귀농희망청년	슬기로운 농장생활	▪ 과수원 실습, 농촌일상 체험 등	
금곡 영농조합법인	돌봄	정신장애인	성인장애인 대상 농업 및 노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텃밭 활동, 직업재활 및 외부활동 등</li> <li>▪ 지역 정신장애인 고용(농장보조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간장애인보호시설(한우리, 햇살), 장애인 거주시설(우리집)</li> <li>■ 울산농업기술센터</li> <li>■ 울주군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li> </ul>
		고령노인	영농 및 노작, 고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어르신 영농 및 고용활동</li> <li>▪ 텃밭 및 농장관리, 체험방문객 보조 활동가</li> </ul>	
수송대밭효마을 영농조합법인	교육 돌봄 고용 기타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농업활동	▪ 농장내 시설 이용한 원예 및 감성치유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창군 지역자활센터(차장위계층 대상 프로그램 연계)</li> <li>■ 귀농학교(발효학교 운영 지원)</li> <li>■ 청소년지원센터(커리큘럼공동발굴 및 지원)</li> <li>■ 해월복지관, 엘림, 효주간보호센터</li> <li>■ 보건소, 치매안심센터</li> </ul>
		청소년	방과후 청소년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과 함께하는 자연생태 체험 운영</li> <li>▪ 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건강 회복 프로그램</li> </ul>	
		주간보호센터 노인	비건베이커리 프로그램	▪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주간보호센터 노인	텃밭요리프로그램	▪ 주간보호센터 어르신 대상 건강유지 프로그램	
		귀농(희망)자	귀농장학교 프로그램	▪ 거창, 부산 귀농학교 장학교 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	장학교	▪ 거창지역자활센터 대상 장학교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교육 고용 돌봄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관련 직업 재활	▪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가공,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생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산 및 대구지역 발달장애인관련기관, 대구청소년자립센터,</li> <li>경산지역양로원원, 보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산중앙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li> </ul>
		청소년자립 생활관	청소년 대상 농업관련 직업 자립 생활	▪ 작물재배활동(재배, 수확, 판매)농업관련 창업 및 자립생활 등	
		경증치매환자	농장형 웰니스	▪ 농작물을 이용한 다양한 테라피 프로그램(4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신적 치유가 필요한 경산시민 및 직장인 (코로나로 인 하여 어르신치 매경증환자 프 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경우 진행 함)	농장형 웰니스	▪ 농작물을 이용한 각종 테라피(4종)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돌봄 기타	장애인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양군 장애인센터, 시설노인 단체와 원예농업활동 프로그램</li> <li>사회적 기능을 돕거나 강화하는 농업 프로그램으로구성</li> <li>직거래 장터 운영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양군 지역아동센터, 함양군 장애인센터,</li> <li>함양군교육지원청,</li> <li>함양군자활센터, 함양군노인회, 함양군지곡면개평마을노모회, 함양군지곡면노인회</li> </ul>
		노인, 장애인	장애인센터, 노인요양시설 농업 활동	▪ 협약단체 참여 식물재배 및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 '담을밭'	교육	지역농업인	농장조성 및 전문가 양성과정	▪ 친환경 농업 실천 농민 중심 사회적 농업 촉진자 그룹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동부종합사회복지관(지역 아동, 주민 교육 프로그램)</li> <li>제주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치유프로그램 및 시설활용 등)</li> <li>한 살림생활(생산물 공급 및 도시민연대사업)</li> <li>제주생태유아공동체</li> <li>제주어린이집연합회</li> <li>비자림유스호스텔/비자숲</li> <li>제주동부기술센터</li> </ul>
		귀농귀촌 희망자	교육 및 연대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살림조합원 대상 제주 귀농귀촌 희망자 모집</li> <li>영농실습,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 정착 지원</li> </ul>	
협동조합 행복농장	고용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성인)자연구시/4박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 및 서울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li> <li>숙박교육, 일상농업활동, 농촌마을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참가자 모집/선정, 돌봄 프로그램 실행)</li> <li>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참가자모집/선정, 돌봄프로그램 실행)</li> <li>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프로그램 공동진행)</li> <li>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공간제공 및 행정지원)</li> <li>장곡초등학교, 금마중학교, 행복한우리동네의원,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li> </ul>
		정신장애인 (성인만성)	(성인)일일자연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홍성군내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부학교 프로그램 운영</li> <li>계절별 농업활동, 시내버스 이용 등 일상생활 연계</li> </ul>	
		성인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성인)커뮤니티케어	▪ 마을내 성인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 대상 마을돌봄 프로그램 운영, 약물관리 등 일상돌봄, 요리활동 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교육 돌봄 고용	정신장애인/ 아동/청소년	사회적 치유 농업 실천 프로그램, 농예일치프로그램, 찾아가는농촌체험, 도시농업프로그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예/동물 치유, 녹색 돌봄, 자연생태체험, 가족건강회복 등</li> <li>정신장애인돌봄, 교육, 고용,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li> <li>화성시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농촌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함께하는정신건강의학과의원(참가자 모집 및 선정/돌봄 프로그램 실행/교육프로그램지원/시설 업무 지원/사례관리)</li> <li>수원여대식품영양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li> <li>화성시도종씨앗도서관(프로그램지원)</li> </ul>

농장명	활동유형	활동내용(2020년초 사업계획서 기준)			네트워크 기관단체명(협력 분야)
		대상유형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함께마을만들기	4. 건강한 농촌 공동체를 위한 어르신 뇌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성시로컬푸드(생산물판매지원)</li> <li>자연누리협동조합(교육프로그램지원)</li> <li>마음샘정신재활센터(참가자모집)</li> <li>신구대원예학과(교육프로그램지원)</li> <li>을지대학교산학협력단(자원봉사지원)</li> <li>한일농업농촌문화연구소한국측대표현의송(농촌복지자문위원)</li> <li>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봉담지소,이음과배움,성문밖학교등</li> </ul>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교육	정신장애인	콩세알 농사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군내 정신장애인 대상 농업활동체험 및 사회생활 경험</li> <li>일부 농장 직접 고용 목표(22년부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애인 활동 진행, 출퇴근, 사례관리 등)</li> <li>강화지역자활센터, 강화교육지원청</li> </ul>
		장애/비장애 가족	콩세알 가족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화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연계 텃밭농사, 버농사, 고구마 농사 프로그램 운영</li> </ul>	
		고령인, 귀농귀촌인	고령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농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기계 작업 지원 등</li> </ul>	
(주)손수레	교육 고용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자폐인사랑협회 직거래 및 체험용 다양한 작물 재배 활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자폐인사랑협회 대전지부(발달장애인 연계, 농업활동 진행)</li> <li>벤엘의집(노숙인대상자활장운영지도)</li> <li>관저종합사회복지관</li> <li>인터플레이,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추자나무목공협동조합, 녹색리듬</li> </ul>
		고령자, 아동	고령자 대상 농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복지관 고령인과 아동 1:1 매칭,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li> </ul>	
		일반인 등	농장 치유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활동 포함 다양한 활동으로 치유농장 운영</li> </ul>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교육 고용 기타	발달장애인, 부모	발달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지관 소속 장애인 및 부모 대상 작물 체험, 가공 체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주 장애인 복지관(소속 장애인 연계, 출퇴근, 사례관리 등)</li> <li>대전교구카톨릭발달장애인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li> <li>공주장애인복지관부모회(심리 상담 교육 및 농업 활동 연계)</li> <li>세종장애인복지관, 공주대 특수교육 및 사회복지학과, 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li> </ul>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치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작물 재배활동 통한 심신 안정, 심리상담 전문가 프로그램 운영 등</li> </ul>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농업 및 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및 자녀 지역사회 편견 해소 교육, 정원 치유 프로그램</li> </ul>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교육	발달장애인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양군 발달장애인 부모회와 연계 토종작물 재배 및 절기별 작물 파종, 모종 만들어 심기, 음식 만들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장애인 농업활동 연계, 출퇴근 및 보조, 사례관리)</li> <li>농촌문화체험연구회(청양군 발달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연계)</li> </ul>



## 4. 외국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사례

### 4.1.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 지원 체계와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사례(케리 카운티)

- 아일랜드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사회적 농업의 중간 주자에 속한다.<sup>5)</sup> 하지만 사회적 농업의 ‘사회적’ 측면, 특히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을 전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조력기구(LDC)들이 정부와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하고 있어 눈에 띈다.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장은 대체로 전문화된 농장도 치료농장<sup>treatment farm</sup>도 아니다(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전문화된 치료농장이나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의 형태로 사회적 농장들이 형성된 경우도 있다).
  -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장들은 의학적 치료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는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일하는 농장’이다.
  - 대부분 중소 규모의 가족농이며 복합영농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다양한 유형의 농장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원예 농장에서부터 십만 평이 넘는 면적의 농경지를 지닌 대형 농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승마, 채소원예, 화훼, 산림경영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양하게 전문화된 농장들도 일부 있다.
- 그런 배경에서, 아일랜드의 사회적 농업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농장에 배치하여 특별히 초점을 맞춘 성과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때 지역의 사람들, 장소, 이러저러한 활동들, 지역사회 등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 자산을 활용하여 사회적 농업 참여자 스스로 선택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장이 지닌 자연 환경 안에서 참여자가 농민과 그 농가 구성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기초하는데, 두 가지 다른 핵심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연결과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이다.
- 그만큼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자 실천이다. 그러나 사회적 농장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 및 광역지역 수준의 관계자 네트워크도 확장되고 공고해지고 있다.

---

5) 유럽의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적 농업은 돌봄농업<sup>care farming</sup>, 건강을 위한 농업<sup>farming for health</sup>, 녹색돌봄<sup>green care</sup> 등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유럽 국가들마다 그 발전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사회적 농업 발전 상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프랑스, 핀란드,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이 중위 수준이며, 아일랜드는 초기 단계와 중위 수준의 중간쯤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회적 농업-아일랜드(Social Farming Ireland, SoFI)

SoFI는 아일랜드 정부가 지정한 ‘국가 사회적 농업 사무국’이다. 농식품해양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and the Marine, DAFM)로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계약하여 일하고 있다. CEDRA<sup>6)</sup>(Commission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ffairs)의 ‘혁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되며,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 ‘레이트림통합발전회사(Leitrim Integrated Development Company, LIDC)’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국가 수준의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발전과 지역개발담당 관료들이 속한 지역의 파트너조직들과 함께 근거-기반 연구 과제를 지원한다.

SoFI는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농업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사회적 농업에 관한 정보 확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할 농업인 교육훈련 및 육성, 보건·사회적 돌봄·기타 서비스 기관들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근거-기반 연구 활동, 정책 개발 등.

SoFI의 활동과 진화에는 두 개의 핵심 위원회가 관여한다. 하나는 ‘국가조정위원회’인데, SoFI 지원 사무국 팀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자, 국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 대표자, 각 지역의 지역개발 담당 관료,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격월로 모여 포럼을 운영한다. 두번째 위원회는 ‘국가자문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연 2회 소집되며 보다 광범위한 전문적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한다. LIDC, 더블린 대학, 파트너십을 형성한 지역발전회사, 서비스 공급자, 참여자,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 구제 수준의 사회적 농업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아일랜드에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최근 들어 발전하게 된 것은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SI) 정책’과 ‘지역사회/농촌 발전(Community/Rural Development, CD)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발전회사Local Development Companies<sup>7)</sup>의 직원들 다수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준비하는 측으로부터의 요청에 충실하게 응답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에 대한 강조는 과거의 사회통합 정책 프로그램(특히, 지역발전사회통합프로그램(Local Development Social Inclusion Programme, LDSIP))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정책에서는 중소 농가들이 공식적인 대상이었다.
  -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아일랜드 사회적 농업의 특별한 발전과 관심 증대 이면에는, 여러 개의 정부 정책과 제도 등이 서로 연계되면서 변화한 것이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런 정책 및 제도 변화는 보건, 사회적 돌봄, 사회통합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더욱 촉진하는 방향을 흐르는 것이었다. 그런 방향 변화의 예로는 장애인 사회복지 모델의 등장, 정신보건 정책 및 지역사회 안에서의 회복을 위한 실천에 대한 강조, 정신적 웰빙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한 강조, 대부분의 사회통합 정책에서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 
- 6) 아일랜드의 환경·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장관이 주관하는 위원회다. 아일랜드 농촌에서 고용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창설한 위원회다.
  - 7) 일종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한국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중간지원조직들이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SICAP)

SICAP(2018-2022)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 지역사회 조직, 공공기관 등의 주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지방 수준에서 서로 관여하는 구조를 갖추으로써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아일랜드 정부가 농촌·지역사회발전부(Department of Rural and Community Development, DRCD)를 통해 유럽연합의 사회기금으로 운영되는 ‘고용·통합·학습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아 수행한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33개의 로컬지역사회발전위원회(Local 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s, LCDCs)가 SICAP을 감독한다. SICAP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실행 기관이라고도 하는 지역발전회사LDC들을 통해 추진된다. LDC들은 주별화된 지역사회체들과 함께 일하며, 다양한 목표 집단 및 서비스 제공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이때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개발 접근방법을 취한다. SICAP을 불리한 여건에 있는 지역사회 및 개인을 지원한다.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이라 함은 실업자, 한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장애인,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는, SICAP의 ‘목표 2’가 깊은 연관을 지닌다. 이 목표는 ‘평생학습 및 노동시장 지원을 통해 불리한 여건에 있는 개인들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도록 돕은 일련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형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 제1차 SICAP에서는 약 11만 명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기반 지원 활동을 실행하였다. SICAP 안에는 여러 개의 주제 영역이 있는데, 사회적 농업은 2차 SICAP에서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물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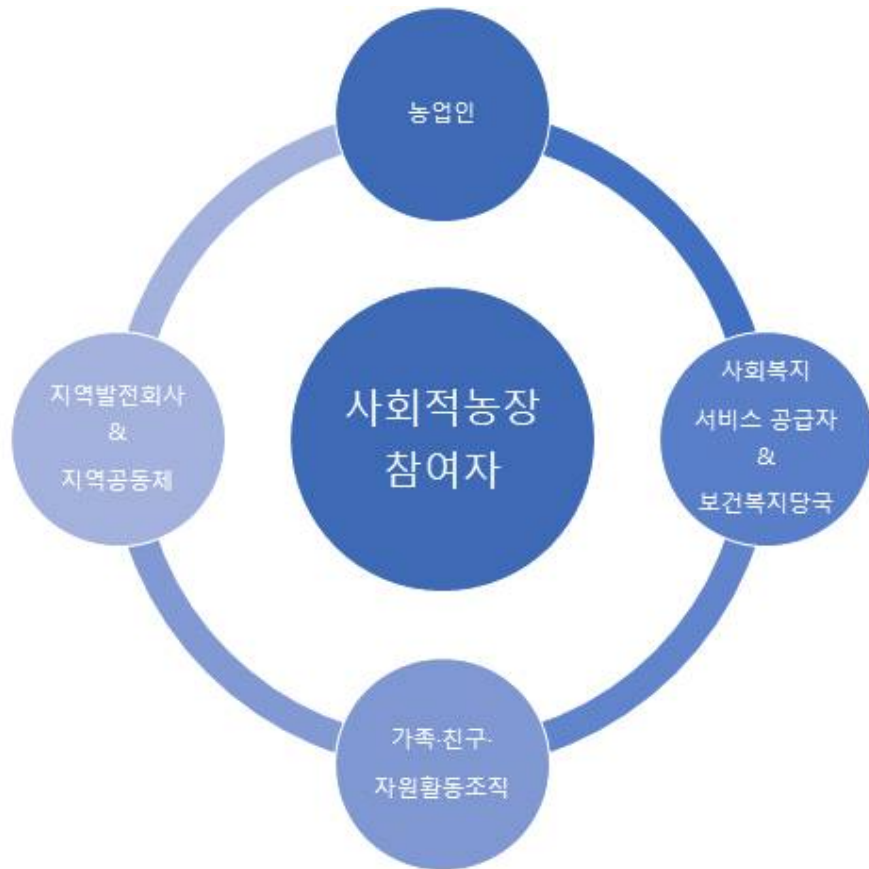
- 현장에서는, 특히 아일랜드 공화국의 접경 지대에서 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 최근 2년 동안 급속하게 늘어났다. SFI를 통해 전국 11개의 카운티들에서 활동하는 28개 농장에서 120명의 참여자, 총 1,700일 동안의 참여가 있었다. 2018년에는 22개 카운티, 약 300명의 참여자, 2,600일의 기록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 활동적인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가 되려고 여러 단계의 학습 과정을 밟으면서 훈련 프로그램을 받는 농민이 약 60명이며, 훈련을 받고 실제로 활동하는 농민도 거의 60명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카운티는 모두 26개인데, 그중 25개의 카운티에 SFI를 통해 훈련을 받은 사회적 농업인이 1명 이상 있으며, 서비스 측면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활용 가능한 농장을 늘리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 사회적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서비스 기관 또는 단체의 수가 늘고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는 각종 자선단체나 재활돌봄 기관, 지역의 지적장애인 지원 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캠프힐 공동체, 보건복지부 장애인 담당 부서, 아일랜드 다운증후군 단체, 지역발전회사, 사회통합 및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Social Inclusion and Community Activation Programme, SICAP) 수행 기관 등이 관계를 맺고 있다.
- SFI의 활동과 노력을 통해 약 7만 5,000유로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다양한 기관들이 대응투자(matching)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 보건기금으로부터 4만 유로의 자금이 지원되었고, SICAP 프로그램으로부터 7,000 유로의 자금이 사회적 농장에 직접 전달되었다.

- 아일랜드에서 발전해 온 사회적 농업 모델은 여러 개의 핵심 가치에 바탕을 둔다. 근본적으로는 개인-중심적이고 개별화된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이는 참여자들이 평범한 가중농 농장에서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회와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둔다.
  - 참여자들에게 생활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결과를 다양하게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는 점에서 진보적인 사회적 농업을 지향한다. 타인 및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 아일랜드의 모든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이 발전하면서, 지금은 분산된 전문기관이나 의료기관 환경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통합의 접근가능한 실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높은 수준의 지지를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SoFI가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바탕에는 엄격한 거버넌스 체계와 과정이 있어서 참여자, 옹호자, 사회서비스 당국, 법정 관리 당국 등에게 일정한 보증을 제공한다. 그것은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가 배치되어 경험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즐겁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 \_Kerry Social Farming>

- 아일랜드의 케리 카운티 인구는 약 15만 명이다. 2013년에 장애인 가족,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 개발 조직(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를 기획할 작업반을 구성했다.
  - 6개월 동안 계획을 수립하면서, 작업반 구성원들은 유럽연합이 주관하여 타 지역에서 열리는 사회적 농업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사회적 농장들을 찾아가 여러 종류의 모델을 학습했다. 케리 카운티의 상황에 적합한 스타일을 계획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 케리 사회적 농업은 자원봉사에 기초하며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서비스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포용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 비전: 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다 더 큰 포용을 이루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
  - 미션: 지역사회 안에 돌봄 서비스 제공자, 장애인,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중간지원조직),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체들, 농민 조직, 농가들 등이 협업하여 케리 카운티에서 사회적 농업을 발전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 이 같은 계획하에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환경에서 보통 사람들(농민)의 실제 삶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같은 활동을 돕기 위한 외곽의 지원 네트워크를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성하였다.

그림 3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의 외곽 지원 네트워크 구조



- 카운티 내에서 30여 명의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고 (participants), 이들을 맞이하여 영농활동을 함께할 농가 11가구가 자원하였다(host farmer).
- 참여자 개인의 욕구나 상황에 따라, 각자 매칭된 농가에 주 1~5회 방문하여 농업을 배우고, 농작업에 가능한 한 참여하였다. 즉, 농가마다 1~3명의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셈이다.
-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차인 2017년에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지원금(인건비)을 받아 상임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를 고용하였다.
- 참여자가 사회적 농장에 처음 올 때에는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활동가가 동반한다. 지원활동가는 참여자와 농업인 곁에서 돌봄 전문가로서 농업인에게 돌봄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알려준다. 가령,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과 함께 작업하고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해 조언한다. 참여자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학습 경험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다.
- 참여자들은 대부분 지원활동가의 도움 없이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지만, 직무(농작업)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다.

- 케리 사회적 농업 시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국고 보조를 받은 연구진이 3년 간에 걸쳐 면밀하게 관찰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평가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참여자에 대한 투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참여자 개인의 욕구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가령, 참여자가 어느 사회적 농장으로 갈 것인지 또는 가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참여자 개인의 계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사회복지 부문의 자금 지원을 개인예산제 형태로 전환한다면, 개인의 욕구를 더욱 배려하는 방식의 접근방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훈련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농업인과 참여자 모두가 요청한 사항이다. 농업인들은 대체로 처음부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곳에 견학을 가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더 많은 학습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시범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SKDP(남부 케리 카운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교육훈련과 안내를 받았고, 지원 활동가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실행학습(learning by doing)이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모니터링과 평가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자가 농장에서 수행한 활동과 이론 성취와 진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임무는 농업인의 몫이다. 농업인들은 그런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가 지지받고 계속 수행되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농업인들은 보다 개선된 방식의 농장활동 기록 양식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 참여자의 활동 내용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농작업뿐만 아니라 장보러 가기, 로컬푸드 매장에서 일하기 등의 활동이 제안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지역사회 내부로 조금 더 알려지고 확산될 수 있다.
  -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과 농장활동 참여의 규칙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참여자와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에 대한 급여 지급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로써 자원봉사 모델에 기초한 케리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지역발전회사(LDC)의 핵심 역할이 확인되었다.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그리고 농촌발전 사이의 긍정적 연관을 전제로, 사회적 농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실행되게 하려면 LDC의 역할이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 추가적이고 지속가능한 자금 지원을 보장해야 하며, 과도한 규제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 SFI와 지방의회로부터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 케리 사회적 농업 퍼실리테이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에 상근하는 퍼실리테이터의 핵심 역할이 부각되었다. 퍼실리테이터는 2017년 초에 새롭게 고용된 인물이고, 새로운 지위였다. 사회적 농장의 농업인들이 특히 숙련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여러 문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수 있어서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직위의 고용은 12개월 주기로 계약되는 형식이어서, 직무의 안정성이 약화되어 있으며, 퍼실리테이터 자신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개선안이나 발전 방안을 고민할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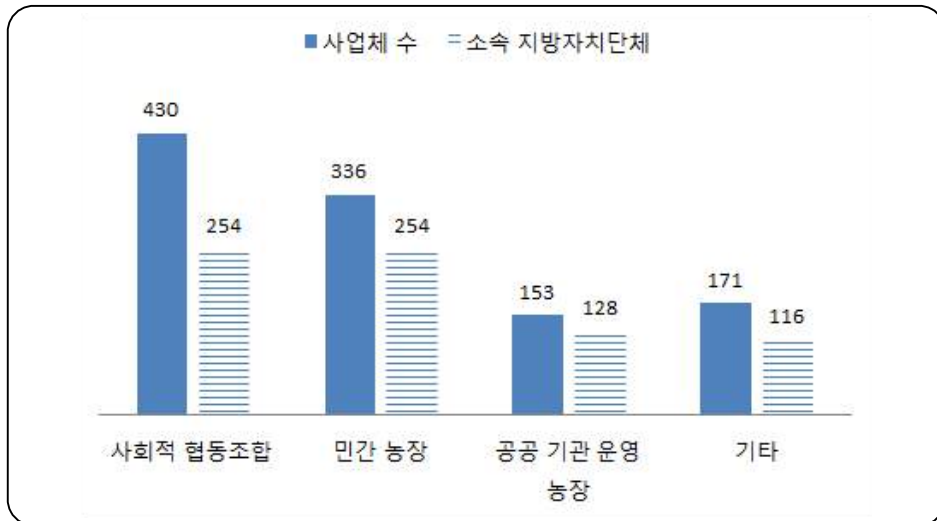


### 3.2.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이탈리아의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

-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농업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1970년대에 기원했다.
  - 이른바 ‘68혁명’과 여타의 지역사회 기반 운동에 토대를 두고 시작되었다.
  -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탈리아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운동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이 출현하는 과정과 깊은 관계가 있다. 정신과 의사 프랑코 바잘리아(F. Bagnalia)가 주도했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폐쇄 사례들에서는 의료계 인사들과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시설을 나온 정신질환자들의 생업, 주간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했는데, 영농을 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은 신뢰받는 사회적 돌봄 체계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들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별 농업인이 사회적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사회적 농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종류의 하위 분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
  -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
-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은 다양한 문제나 장애(예: 중증이 아닌 신체장애,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학습장애,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 등)를 지닌 특정한 사람들 또는 취약계층(예: 장기 실업자, 출소자, 약물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농장에서 노동통합과 사회적 포용을 추구한다.
  - 이들은 원예, 포도 및 올리브 재배, 가축 사육, 농식품 가공, 농산물 직판, 농장 레스토랑 등의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종사한다. 이런 식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역량과 기술을 향상하고, 사회적 일상생활을 개선하며 사회와 노동시장으로 재통합될 수 있는 대안적 실천을 경험하게 된다.
- 아동 돌봄 및 교육훈련을 지향하는 사회적 농업에는 아동이나 학생이 농장 활동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양을 얻고 환경 교육을 받게 하는 목적의 교육이나 유연한 돌봄 활동이 포함된다.
  - 이탈리아에서, 이른바 이들 ‘교육농장’은 최근 수년 사이에 상당히 늘어났으며 사회복지 체계에도 유의미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

- 이탈리아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가 함께 모이는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가 지역사회 기반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네트워크는 마케팅의 핵심 요소인데, 농장이 자신의 특별한 실천을 소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도 사회적 농업 포럼이 있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 1990년대 들어 이탈리아 정부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개념을 탈피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공공 서비스 제공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였다.
  - 1978년 이후부터 이미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주 정부, 코뮌네 등의 지역 공공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대다수가 협동조합 형태였다.
  - 정부는 기존의 민관 협력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지위와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려고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 법’을 제정하였다. 이때부터 많은 지역사회 조직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고, 지역 공공 기관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 돌봄과 교육 서비스(재가 복지, 주간보호센터, 요양 시설, 아동 돌봄 시설 등)를 제공하는 A유형과 농업·제조업·상업·서비스업 등의 각종 사업을 하면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이들의 노동 통합을 지원하는 B유형이 있다.
  - B유형은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도 우선권을 가지고 참여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의 조합원은 돌봄 및 교육 전문가 직원, 자원 봉사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다. 사회적 협동조합 B 유형은 일반 직원, 취약 계층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법적으로 B유형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 취약 계층이어야 하며, 자원 봉사자가 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A유형과 B유형이 혼합된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으며, 지역사회 내에서 2~3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운영 조직 유형별 사회적 농장 현황(2015년 기준)



- 사회적 농업의 실천 유형을 운영 주체와 활동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첫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기관에서 관리하는 돌봄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주로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접 농장을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농장과 협력한다.
  - 두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직업 재활 치료 대상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의 농장이나 민간 농장에 자원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한다.
  - 세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유럽연합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지정한 대상자를 교육생으로 받는다. 교육생은 최대 2년 동안 농업 직업 교육훈련을 받는다. 돌봄 서비스, 직업 재활 치료, 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역 공공 기관에서 직접 농장을 운영하면서 제공하기도 한다.
  - 네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여 노동 통합을 추구하는 형태다. 지역 공공 기관과 협의하여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원받는다.
  - 다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 또는 민간 농장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농촌관광 사업을 하거나 농장의 일상, 건강한 먹거리, 자연 등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다. 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협동조합 A유형이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농업 활동을 매개로 아동 돌봄 시설을 운영하거나 재소자, 약물 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 2015년 기준으로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사례는 1,090 개로 추정되며, 이중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40%, 민간 농장이 31%이다. 또한, CREA<sup>8)</sup>에서 수행한 사회적 농업

실태 조사<sup>9)</sup>에 따르면 고용을 목적으로 실천하는 사례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0년과 2015년 사이에 시작한 사례가 30%로 최근 사회적 농업 실천이 민간 농장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아그리꼴뚜라 카포다르코(Agricoltura Capodarco)

사례 농장은 로마 근교에 있다. 1978년에 지역 내 장애인 복지 기관의 장애인들을 농업 활동에 고용하려는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지금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A, B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원은 농업인,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원예 치료사, 요리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며 전체 직원 수는 약 50명이다. 상주 직원이 10명이고 조합원은 38명이다.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약물 중독자 등의 취약 계층도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취약 계층은 농사 경험이 있거나 관련 기술이 있으면 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조합원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2년까지 직업 연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생 신분으로 고용된다. 약 30명의 지역 내 청년 자원 봉사자들도 협동조합의 농업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보조한다. 농장 부지의 대부분은 국유지를 임차한 것이다. 일부 건물 및 토지는 지역의 수녀원에서 기부하였다.

농장은 채소와 과일을 주로 생산한다. 가공 시설을 갖추고 있어 와인, 올리브 오일, 꿀 등을 생산하여 판매한다. 로마 시내와 농장에 레스토랑과 식료품 가게를 직접 운영하여 소비자와 직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와인, 올리브 오일 등의 상품은 전문 중개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판매한다.

고용된 약물 중독자,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취약 계층은 보통 농업 활동을 보조한다. 노동 역량이 부족하거나 농업 활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일을 돕는다. 지역의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력하여 3개의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조합원이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다른 협동조합에 고용되어 일할 수 있다. 2008년부터는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원예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원예, 미술, 음악, 동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제공한다. 기관에서 관리하는 발달 장애인, 약물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조합원인 정신과 의사 2명과 원예 치료사 1명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료: 2017년 2월 이탈리아 출장에서 방문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영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고, 웹사이트([www.agricolturacapodarco.it](http://www.agricolturacapodarco.it))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8) 이탈리아 중앙 정부 출연의 농업·농촌 분야 연구 기관

9) 300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제 조사에 208개 사례가 응답하였다.

### <이탈리아의 사회적 농업 정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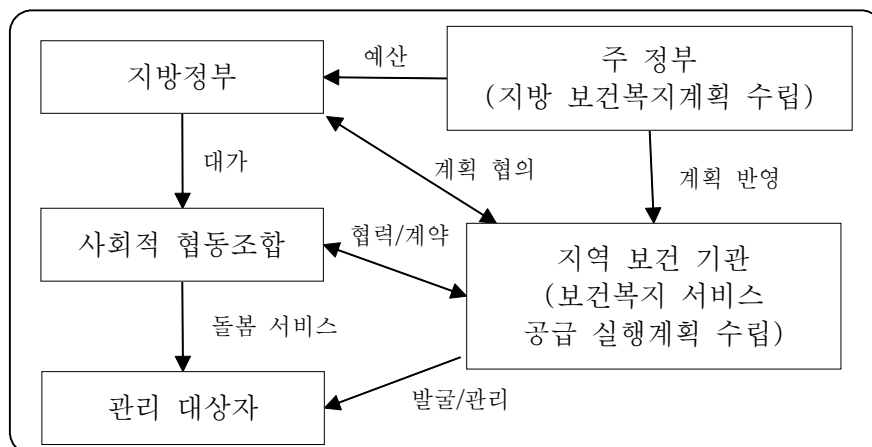
-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법제의 틀 안에서 사회적 농업을 지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방정부, 지역 공공 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업 활동에 취약 계층을 고용하거나 농업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대가는 국가로부터 지급받고, 취약 계층 고용 시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보건복지, 고용, 교육 제도 안에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이탈리아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의 추진 체계를 이해하려면 보건복지 제도 및 정책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보건복지 제도의 기본 원칙과 목표를 제시한다. 자치권을 가지는 21개 지방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각자의 지역 여건에 맞게 보건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보건 기관(ASLs: Local Health Authorities)<sup>10)</sup>은 지방 정부의 보건복지 계획을 반영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으로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 돌봄 서비스를 예로 들면, 지역 보건 기관은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관리한다. 이들의 상태나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역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지방 정부는 시행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산을 지역 보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지방 정부로부터 보건복지 예산을 받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적 협동조합에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로 정책 지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사회적 협동조합 A 유형은 지역 보건 기관과 계약을 맺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서비스 제공 대가를 지급한다. 대가는 1인 1일 기준으로 30~70유로 수준이다. 돌봄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나 서비스 이용 시간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난다. 아동 돌봄 서비스, 채소자 및 약물 중독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지역 공공 기관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과 민간 농장은 노동 통합을 목적으로 지역 보건 기관의 관리 대상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 및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취약 계층을 고용할 경우 특별 고용 계약을 맺고, 임금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직업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리 대상자에게는 지방정부가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1달에 200유로 지급한다.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유럽 연합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민간 농장은 교육 운영 예산을 지원받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리 대상자는 임금 성격의 보조금을 1달에 400유로정도 받는다. 사회적 협동조합 B유형은 세제 혜택을

10) 지역에서 주민들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리학적인 특성과 인구를 반영하여 설치되는 공공 행정 기관이다. 관할 구역의 보건복지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관리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전역에 143개의 지역 보건 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 826개 지구 사무소가 있다. 여러 지방정부를 포함하기도 하며, 1개 지구가 담당하는 주민의 인구는 평균 60,000명이다(Ferre 외, 2016).

받고 경관 및 공공시설 관리 등의 공공 일자리 분야에서도 우선 참여권을 보장받는다.

-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법과 조례도 제정되었다. 21개 중 13개 주가 조례에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 정부에서 수립하는 보건복지 계획이나 농촌 발전 계획에 사회적 농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2015년 8월에는 주 정부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을 통일하고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려고 ‘사회적 농업 법’을 제정하였다. 법은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범위를 제시한다. 노동 통합, 고용, 치유, 재활, 교육을 목적으로 개인,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농업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하였다. 농업 관련 매출액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국유지 사용 우선권, 공공 조달 우선권 등의 지원 방침을 제시하며,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원 조직을 설립하여 사회적 농업 경영체 인정, 기술 지원, 교육 과정 개설, 점검·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 보건기관의 협력 관계



자료: Iacovo & Peroni(2006)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임.

## 4. 시사점: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 확산하기

### 4.1. 개요

○ 국내에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곳들의 경험과 아일랜드 케리 카운티 시범 프로젝트의 내용을 토대로,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적 농업 추진 방안의 기초적인 윤곽을 구상할 수 있다.<sup>11)</sup> 현재로서는 일련의 ‘원칙들’에 가까운 것이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부가해서 완성할 뼈대가 될 수 있겠다. 그것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읍면 혹은 시·군 단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함께 실천할 여러 명의 농업인 그룹을 형성해야 한다.
- (2) 이들 농업인과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보건복지 분야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참여자가 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아동 등의 가족이나 당사자 조직, 그리고 사회적 농업 실천에 조력할 기관·단체(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 여성 농업인센터, 주민자치회 등)이 작업반을 형성해 사회적 농업의 지역사회-기반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는 당연히 이들 작업반 구성원들의 ‘사회적 농업 학습과 교육훈련’이 동반되어야 한다.
- (3) 작업반을 중심으로 관계자들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행한다. 실행 과정에서도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꾸준하고 실질적인 학습과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에 관해서는 광역 단위의 거점농장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집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 (4) 전국 또는 지역의 사회적 농업 실천농장들이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개최하며, 조력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사회적 농업에 관해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4.2. 지역사회-기반 사회적 농업의 모델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한다고 할 때 그 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전개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종류의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 지역사회 안에서 여러 사회적 농장과 비농업 부문 행위자들이 협력 연결망을 구성한 토

---

11) 이탈리아와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도 실험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런 사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정책이 이탈리아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바탕을 둔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을 한국에서 사회적 농업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상당한 실험과 변형과 기간이 필요할 듯하다.

대 위에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한다[아일랜드 캐리카운티 사례 참고].

- 농업인을 포함한 여러 분야 행위자들이 협동조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을 구성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면서 실천한다[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 참고].

○ 사회적 농업 실천 주체로서 연결망 구조

- 5개 내외의 사회적 농장(실천농장),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상근 퍼실리테이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등의 조력 기관

\* 이 같은 연결망 구조 그 자체로는 행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이 부여되는 단위(예: 법인)가 되기 어려우므로 참여자 중 역량이 가장 높고 리더십을 갖춘 사회적 농장 한 곳이 대표를 맡는다.

○ 협력 연결망 모델의 사회적 농업 실천 유형별 장단점

- 돌봄: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자들이 분산 배치되는 방식이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안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정기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 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나 농장활동 프로그램 수준을 뛰어넘는 돌봄이나 고용을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른다.
- 고용: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일용 농업노동의 형식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분산 배치의 경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을 살리는 모델인 만큼, 한 사회적 농장에서 장기적인 상근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농업교육: 지역사회 내에 직업훈련으로서 농업 교육을 귀농 청년, 발달장애인 등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훈련의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다. 직접 농작업의 전체 주기 모든 활동을 경험하면서 일정한 수입까지 거두는 방식의 집중적인 농업교육을 실행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 (인적 자원 운용) 사회적 농업 실천과 관련한 전담 인력으로 상임 퍼실리테이터를 둔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 조율: 읍/면 또는 시/군 수준에서 형성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구성원들의 활동을 조율한다. 가령,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각기 어느 사회적 농장에 배치할 것인지, 또는 배치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할 실무 책임을 맡는다.
- ▶ 참여자 관리: 여러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개인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면담하며 관찰한다. 가령, 발달장애 청년 A씨가 사회적 농장 '갑'에 주 2회 방문하여 농장활동을 하던 중 집에서 농장 '갑'까지의 거리가 멀어 불편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가까운 다른 사회적 농장에 연계하거나 교통수단을 마련한다.



▶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킹 촉진: 지역사회 내 농업인, 보건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획과 실천을 제안한다. 가령, H군 J면 소재 사회적 농장들이 의논한 수 H군의 치매안심센터와 J면 사회보장협의회 임원단을 접촉하여 J면에 거주하는 경증치매노인의 인지개선을 위한 사회적 농장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 실천 확산: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농업에 관심을 갖는 농업인을 초대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농업 현황을 설명하고, ‘거점농장’에 연결하여 교육, 학습,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안내한다.

○ (농업인의 역할) 지역사회 내외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초대하여 농장활동을 매개로 돌봄, 교육,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가령, 발달장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또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 분야 인턴십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고령 소농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간활동프로그램이나 농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 귀농인들에게 영농을 가르칠 수 있다.

○ 물적 자원 운용

- 하나의 조직이 아닌 연결망 형태의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련된 금전적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단일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연결망 구성원들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경상비용의 부담 및 외부로부터 오는 보조금 등의 경상비 지원금 분배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단, 상임 피실리테이터의 임금은 연결망 구성원들이 각출해서 부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며, 공공부문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합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보건복지 서비스 등의 제공기관이 지닌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사회적 농장에 지불할 수도 있는데(예: 주간활동 프로그램 위탁 시행), 이때 해당 제공기관이 참여자가 방문하는 사회적 농장에 직접 지불한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 (협동조합 방식) 여러 명의 농업인,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 및 당사자 조직, 보건복지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사회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학교 등), 기타 다양한 지역사회 내부의 조직 등이 출자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조직 형식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 협동조합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이 농업인들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급적 비농업 부문의 행위자도 참여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농업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 소유 혹은 임차 측면에서 제도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농업법인에 관한 중요한 법령 개정을 통해서만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과제로 남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영농조합법인에 비농업행위자들이 준조합원으로 참여하거나, 비농업행위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사회적 농업 협동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의 상법상 법인 형식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하고 정관에 ‘1인1표의 원칙’을 두어 협동조합과 유사하게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협동조직은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혹은 정관상에 민주적 의사결정 원칙을 명시하여 조정한 농업회사법인 등이 유력한 조직 형식이 된다.

○ 지역 내의 보건복지 및 교육 관련 기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조력 기관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 협동조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협동조합 방식의 장단점

- (장점) 상대적으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해 하나의 조직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비교적 큰 규모의 사회적 농장을 갖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고용이나 장기간의 집중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다. 법인격을 지니는 하나의 조직 단위여서, 외부 기관이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식적인 계약협약재정지원 등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유리하다.
- (단점) 협동 조직을 설립하는 데에는 출자자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어서, 초기 설립 과정이 쉽게 진행되기 어렵다.

○ 인적·물적 자원 운용

- 농업활동이 여러 농업경영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 조직이 보유한 농장에서 이

루어진다는 점이 ‘협력 연결망 모델’과 다른 점이다.

- 물적 자원 운용 측면에서는 자산, 경장비용, 수입 등의 모든 흐름이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 4.3. 추진 전략

○ (농촌 현장에서 사회적 농업 협력 연결망 구성을 촉진하는 포럼) 정부 지원사업만을 유일한 인센티브로 삼아 사회적 협력 연결망 구성을 촉진할 수는 없다. 농촌 현장에서 형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결사와 다양한 협동조직 활동의 흐름과 연결하여, 민간 차원에서의 자발적인 사회적 농업 확산을 촉진하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정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서류상의 협력 연결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 ▶ 기초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 거점농장 등 조력 기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농업인, 비농업 부문 보건·복지·교육 분야 기관, 사회적 농업 참여자 당사자 조직 및 가족 등과 간략한 ‘지역사회 사회적 농업 계획’을 준비하는 포럼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약간의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계획’에는 사회적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장활동 참여자, 보건복지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분담해야 할 역할, 활동의 규모, 일정 등이 포함되게 한다.
- ▶ 이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바람직하게는, 그 ‘계획’에 따라 사회적 농업 실천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험해볼 수 있다.
- ▶ 예를 들어, 무주군 안성면 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신청할 농업경영체들과 사회복지기관 등을 사전에 조직하는 활동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익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3개의 농업경영체를 별도로 네트워킹하여 농식품부 지원사업 신청 전에 자발적인 학습 모임을 운영한 바 있다.
- ▶ 예를 들어, 거창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원주생명농업, 임실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강원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은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 사회복지기관 등이 모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나 연속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 ▶ 타 부처가 농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지역에 홍보하고 권장한다. 이때, 연대해야 할 중요한 조직이나 단체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조직 연합체, 주민자치회, 농업회의소 등이다.

○ (기초 수준의 역량강화 및 지식·정보 확산) 사회적 농업을 준비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에 ‘지역사회 기반’의 관점을 강화하여 반영한다.

▶ 현재는 농정원이 위탁 공모제 형식으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집체교육, 농식품공무원 연수원에서 기획 진행하는 집체교육,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진행하는 사회적 농업 소개 교육 정도가 있으나 교육내용 편성이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나 개별 강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별도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농업’ 교육 과정을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사회적 농업’ 준비 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적절한 단위(거점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 연합 조직 등)를 통해 운영케 한다.

○ 사회적 농업 실천 농업인 등의 직무역량 강화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 당사자들(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과정을 정형화하여 제공한다. 거점농장들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때 교육내용상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역사회 기반’이라는 관점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면할 때 견지해야 할 관점 및 스킬’이다.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의 교육훈련, 컨설팅 등의 활동을 점검하고 ‘거점농장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 과정은 교육훈련 활동을 담당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학습이 요청되므로, 전문연구자와 거점농장 담당자들이 밀도 높은 세미나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각종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콘텐츠(도서, 텍스트 자료, 영상 등)를 개발하고 배포할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현재로서는 거점농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공동체팀의 몫으로 남겨져 있는 듯하지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sup>1)</sup>

조미형(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본 강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아동을 만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1) 아동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아동복지법)로 정의하므로, 영유아를 비롯하여 미취학아동에서부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하, 청소년<sup>2)</sup>) 연령대까지 포함됩니다. 사회적 농장에서는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일부 농장은 청소년과 함께 활동하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생과 청소년은 다릅니다. 초등학생도 저학년과 고학년이 다릅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아닌 아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 4대 원칙

#### ① 비차별의 원칙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즉, 장애, 학교, 부모의 국적, 부모의 직업 등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

- 다문화/북한이탈주민 가정 아동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 가정의 경제상황에 따라 아동이 주눅 들고, 활동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된다.
- 장애아동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다.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뇌병변 장애, 시청각 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분리하고 있는데,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하는 활동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 만나고 있는 아동 개개인을 떠올려 보면서, 평상시 하는 말 속에서 차별적인 언어는 없었는지, 아동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불쑥 던진 말은 없는지 생각해 보면

1) 본 원고는 여민동락영농조합법인이 개발한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매뉴얼(조미형, 2021)”의 일부임.

2)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좋을 것입니다.

## ②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아동과 성인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른들에게 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에 아이들의 놀이터가 필요할 수 있다. 화장실에는 아이들의 높이에 맞는 변기와 세면대가 필요하다. 공원에 어른들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는 설치되어 있지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는 없다.
- 다음의 사례는 차를 주로 이용하는 어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것이다. 일상생활 곳곳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어른 위주의 공간이 많다.

한 아이가 “학교에 올 때 차를 타지 않고 걸어와야 해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는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올 수 있는 안전한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어른들이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 걸어올 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농두레>

## ③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

아동은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대부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아동이 참여하는 ‘수동적’ 참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부모나 보호자, 교사 등 어른의 의견에 따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기획된다. 가끔 아이들의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 어른들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하고, 아이들은 ‘놀고 싶다’고 한다.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늘상 ‘놀고 싶다’는 뻔한 대답을 한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놀고 싶다’는 말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놀 것인지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도 단편적으로 ‘놀고 싶다’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게 된다. 어른들은 급하다. 빨리 답이 보이는데, 굳이 아이들에게 묻는 절차가 형식적인 절차로 여기고, 무시하게 된다. 아이들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무심기 행사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나무를 직접 심었을 때,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마을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방안으로 학생들에게 틀두둑이라는 나무로 만든 틀을 제공하여 그곳에서 자신만의 작물을 키운다면 학생들이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틀두둑을 관리할 것이다. (...) 학생들이 자치회를 통하여 자신이 키울 작물에 대해 조사하였고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종을 구입하여 틀두둑 학교 텃밭에 심게 되었다. <야호>

- \*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조건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정에서 훈육이 필요하듯, 사회적 농업 활동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 ④ 생존과 발달의 원칙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돌봄,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보호, 교육, 안전한 생활환경,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적절한 보호와 지원이 되어야 한다. 아래 예시에서처럼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 모둠으로 활동을 진행할 때와 학년별로 구분하여 진행할 때 활동의 목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동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차이가 워낙 커서 연령별 적절한 교육 설계가 필요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전 학년을 한 모둠으로 묶어서 형, 누나가 동생들하고 같이 도와 가면서 한다는 개념으로 했는데 실제 전 학년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할 때는 정말 어려웠다. <항꾸네>

- 연령대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등 고학년 아동이 저학년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 ▷ 아동 발달 특성

아동을 만나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발달원리를 따릅니다.

첫 번째, 발달에는 순서가 있고 이 순서는 일정하게 나타난다. 이는 연령에 따라 발달에 따른 행동 특성이 일정한 순서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리는 발달의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발달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신체기관과 신체부위에 따라 발달의 속도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원리는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연령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유전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달이 더 빠를 수도, 좀 더딜 수도 있다. 네 번째 원리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것이다. 영·유아, 아동의 신체 및 정서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가 존재하며, 이 시기에 환경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영역의 발달에 결함을 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에서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다섯 번째 발달의 기본원리는 발달의 각 영역 간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달영역

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만, 한 발달영역의 극적인 변화가 다른 발달영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 중에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점과 각 영역 간 상호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 농장에 온 아동 중에서 결정적 시기에 결핍이 생긴 경우 관심과 지지, 또래와의 관계 형성, 신체활동 등을 통해 보충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동을 만날 때 주의할 사항

- 아동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어른이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 성장한다. 농사일도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될 수 있다.
- 일회적, 단절적 체험활동을 나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아이들이 교육하면 싫어한다. 체험만 하면 안 되겠냐’고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하였다. 교육을 하는 사람과 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말고, 배움의 과정에 같이 하는 방식이다. 아이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한다.

놀이 속에서 같이 눈 맞추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 주고, 대답해 주는 것을 가장 바란다. 또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란다는 말을 믿는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찾을 맥락만 잘 구성해 놓으면 알아서 잘하게 마련이다. <야호>

-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속도와 방식으로 농사활동을 한다.

논학교는 일체의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기를 사는 아이들에게 기계 없이도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손과 발로 농작업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벼농사에 대한 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농두레>

- 아동의 흥미를 갖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모험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기 앞서 아동이 하고 싶어하는 활동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다. 모험을 즐기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삽질도 해보고, 낫으로 벼를 베어보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논이라는 풍경에 익숙한 시골 아이들이지만 의외로 벼의 자세한 생김새, 논흙의 촉감, 낫질하는 느낌 등은 전혀 몰랐습니다. 벼농사를 짓는 가정의 아이도 논에 발을 담가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논독을 만들 때는 삽질을 해야 하고, 번지 작업을 할 땐 괭이와 레이크를 사용해야 하고, 벼를 벨 때는 낫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논독을 올리려 물을 막을 때의 삽질보다 논독을 깎을 때 하는 삽질이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소농두레>



## (2) 사회적 농업 활동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

▷ 사회적 농장은 지역사회의 일부로, 작은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배움의 장으로서 중요하다. 생계수단으로서는 물론 전통과 사람들이 지역에서 천연자원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경험한다. 교실이 농장으로 이전되면 아이들은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은 실제적인 것을 보고, 무언가를 하며,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고, 지역 자원에 기반한 직업들을 알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된다.

농장에서의 활동(작업)을 통해 그동안 배운 이론적인 것을 실생활에 적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실제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전통적인 학교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가치들을 얻을 수 있다.

\* 마을 텃밭 활동은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sup>3)</sup>

- 타 지역에서 이주한 활동가를 학교로 초대하여 학생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활동을 기획한다. 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농촌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간접경험이 될 수 있다. 활동가는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선생님으로서, 같은 마을의 주민으로서 관계 확장을 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활동가와 만남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지 못했던 타지에서의 삶, 지금 사는 곳에 대한 다른 시각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중에는 학생들이 활동가를 길에서 만났을 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집에 찾아가서 놀기도 하는 등 학교의 텃밭을 통하여 그저 마을에 사는 주민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이웃으로 다가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주기 위해, 이웃에 사는 친구의 부모 나라 문화를 경험하는 활동을 운영한다. 외국에서 온 이들을 강사로 초대하여 그 나라의 인사, 손님 맞는 예절, 전통 음악이나 춤, 음식 등에 대해 듣고 경험해 볼 수 있다.

▷ 사회적 농장 활동은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둘러싼 사물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되어야 한다. 농장 활동은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제품의 기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들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참여와 근본적인 이해로부터 배제된다. 농장에서 함께 협력하여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야채를 수확하고, 나무를 베어 쉴 곳을 만들고, 양털을 베거나 요리를 하는 등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험을 쌓고 일상생활에 스스로 중요한 기여자라고 느낀다.

▷ 자기효능감을 구축할 수 있다.

아이들은 흙에 씨앗을 심고 씨앗이 자라서 작물을 수확하기까지 가꾸고 돌보면서 성

---

3) 해남 야호농장 사례

취감을 느낄 수 있다. 맡은 일들을 완수해나가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향상된다. 특히 교실에서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 중에서 성공할 기회를 주는 농장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교실에서 보여지는 불안은 아이들이 유용한 장소에서 의미있는 활동을 찾을 때 사라진다.

#### \*스캐폴딩 교수(instructive scaffolding)

아동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성인이나 더 유능한 또래가 체계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활동이다. 스캐폴딩을 통해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능동적인 참여자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이 전에 씨앗을 심어본 적이 없다면, 파종 방법을 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모델링하여 심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독립성을 달성할 수 있다. 모종삽을 사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심을 씨앗에 적합한 깊이로 고랑행을 팔 수 있다. 그런 다음에 권장 간격에 따라 고랑 줄에 씨앗 3개를 놓는다. 아이들이 도착하면 최소한의 구도 지도로 패턴을 명확히 보고 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일지라도 심는 과정에서 권한과 능력을 느낄 수 있게 된다.

#### ▷ 실천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아이들이 농장에서 식물과 동물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면서 그들을 둘러싼 자연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부 아동은 실제 활동을 하면서 “쾌감”을 얻는다. 그것은 몸에 흔적을 남긴다. 즉 습관이 된다.

#### ▷ 학습이 신체와 연결될 때, 그 지식은 실제 경험과 장소를 연결한다.

아이들의 활동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그 경계가 확장되면, 아이들의 장소에 대한 감각과 관련하여 자신의 지역에 대한 정체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기초와 의미 있는 “근원”의 경험은 아이들의 교육 및 직업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동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족을 이루고 정착할 때 주로 현지를 기반으로 선택한다. 어린 시절에 의미 있는 지역사회와 통합 경험이 있다면 다시 이사를 가서 자신이 자란 곳을 거주지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 자원으로서의 농장”은 정체성과 기여 경험을 통해 작은 마을의 더 심각한 인구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 (3) 아동과 함께하는 활동이 농민에게 주는 의미

사회적 농장은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농장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과 만나면서 농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농민들은 아이들이 농장에 올 때 지역사회에서 그동안과는 다른 유형의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농장에 있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접촉한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싶어할 때 매우 좋다. 아이들을 알아간다.”

#### (4)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서 참고할 원칙

아동과 교실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수업을 진행할 때, 이들의 높은 에너지나 산만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아이들의 에너지와 열정을 학습 활동으로 전환하고, 거미줄이나 새소리,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집중을 방해할만한 요소들을 교육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농장은 매우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학습의 공간이 된다.

##### \*가르칠 수 있는 순간(Teachable moments)

자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날아드는 새나 벌레가 아이들의 관심을 끈다면 이 순간 계획했던 수업이나 활동이 아니라 새나 벌레에 대한 관찰과 토론을 통해 아이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방해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자연의 현상으로 수업 내용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농장이라는 환경이 가지는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아이들은 주변 세상에 대한 자연스러운 호기심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순간은 시간이 지나도 기억될 것이다.

농장 활동에 대해 기대하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 Life LAB(2016)<sup>4)</sup>

-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도구를 사용할 때 특정 도구의 안전한 사용 방법을 정하고, 모범을 보인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 끝이 뾰족한 도구는 항상 무릎 아래에 둔다.
  - 도구를 가지고 이동할 때는 뛰지 말고 걷는다.
  - 작업이 끝나면 청소하고 도구를 치운다.
- 가능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어떤 농작물을 심을지, 농작업 활동을 할지, 수확한 생산물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책임을 분담하는 등의 협동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
- 아이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고려한다. 그룹의 모든 사람이 명확한 활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연령에 관계없는 학습을 위해 농장 활동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친구가 되는 것을 고려한다.
- 조용하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과 신체활동이 많은 동적인 활동의 균형을 유지한다.

4) Life LAB(2016)의 일부를 요약 발제하였음.

- 학생 개인 또는 그룹 활동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계획된 활동 이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준비한다.

#### ▷ 자연교실에서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교육<sup>5)</sup>

##### ① 아이들이 텃밭의 주인이 되도록 하기

아이들에게 실험하고 실수하는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텃밭이 자신의 것임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다.

\* 텃밭 활동을 할 때, 공동 텃밭만 운영하지 말고 개인 텃밭과 병행하는 게 좋다. 아이들은 ‘같이 해봐’, ‘우리 것이야’ 하면 ‘그게 뭐야’라고 받아들인다. 그런데 내 것이 있고, 우리 것이 있으면 구분해서 ‘우리 것’을 정확하게 인지한다. 학교가 제공한 공동 텃밭에는 고구마를 심었다. 개인 텃밭은 야호해남에서 상자들을 준비해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고 흙을 담게 했다. 각자 원하는 것을 심었다. 개인 텃밭에 쏟는 애정은 교사들이 놀랄 정도로 대단하였다. 틀두둑이라는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여 작물을 재배하니 아이들이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활동시간 이외에도 관리하는 모습이 보였다.<sup>6)</sup>

##### ② 학습 커뮤니티 구축

농장에서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의 멘토링을 할 수 있다. 이전에 농장 활동에 참여한 아이들이 현재 참여자를 가르칠 수 있다. 농장에서 어르신,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들이 함께 일하는 경험을 통해 구축된 학습 커뮤니티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농장이나 교육용 텃밭은 멘토십, 자원봉사, 그리고 지역 모임을 장려하는 포괄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 학습 커뮤니티에 부모나 조부모 보호자가 참여하는 것이 좋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들은 텃밭을 문화교류의 중심지이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③ 경이감 기르기

농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사실 전달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관찰을 통해 배우고 흥미와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훌륭한 교육은 사실을 가르치는 것만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텃밭은 생명체가 사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물이나 동물과의 경험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농장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다.

##### ④ 감각 발휘하기

농장에서는 감각적인 체험은 자연에서 보내는 좋은 음식과 시간에 대한 평생의 애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풍부한 추억을 만들어 낸다. 농장은 흙을 만지고 밟고, 잘 자란 작물의 향기, 또는 바람의 움직임 등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

5) Teaching in Natures's Classroom에서 요약 발제하였음.

6) 해남 야호농장 사례

⑤ 의미있는 운동에 아이들을 참여시키기

아이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면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 외에도, 이것은 환상적인 운동이다. 농장에서 체력단련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외바퀴 수레가 가장 훌륭하다. 손수레 타기와 비슷하게 나무타기는 아이들의 근육 조정과 체력뿐만 아니라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할 때는 안전하게 하도록 지침이 있어야 한다.

⑥ 자연에 빠져보기

농장은 아이들에게 자연 세계에 몰입하여 탐구하고, 다면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⑦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결

아이들이 재배한 작물의 수확, 수확 후 처리, 무게 측정, 포장 그리고 저장고로 배달까지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서비스 학습의 확장이다. 농산물의 마케팅이나 판매와 관련된 직업 기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농장 자체가 부모와 이웃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

⑧ 정원에서 일하고 놀기

아이들은 씨앗을 심고, 농작물을 가꾸고, 퇴비 손수레를 굴리는 등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기회를 즐긴다. 그것은 재미있다. 농작업은 가치 있는 형태의 놀이로 발전한다. 농장 활동의 또 다른 만족스러운 측면은 아이들에게 더러워질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흙장난을 즐기는 아이들이 많다. 흙에 대한 규칙적인 노출은 실제로 건강에 좋다. 아이들이 흙을 다루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신발이나 옷을 더럽힐 걱정을 하지 않도록 부츠, 작업복, 모자, 그리고 우비를 준비한다. 손 씻는 곳과 같은 뒷정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⑨ 통합 커리큘럼 활용

농장 교육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음악에서 식물학, 수학, 창의적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목을 접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텃밭이나 정원에서 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연계하여, 아이들이 흙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며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다.

⑩ 식물과의 연관성 배양

농장에는 기르고, 수확하고, 준비한 음식들이 있다. 관계를 통해 아이들은 그들이 먹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깊은 유대감을 발전시킨다. 농장은 음식에 대해 가르치기에 이상적인 환경이다. 아이들은 음식이 살아있는 식물에서 나온다는 이해를 함에 따라,

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준다. 오이를 낳은 식물, 그것을 먹여 살린 비, 흙, 공기, 햇빛, 그리고 씨앗에서 수확까지 오이를 키운 아이들과 어른들과 연결 될 때 오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 ⑪ 장소 감각 키우기

아이들은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야외 학습 환경을 제공할 때 놀라운 학습 과정이 펼쳐질 수 있다. 장소 의식을 기르는 것은 농장 기반 교육의 핵심 요소이다. 교육자로서 수업계획, 계획된 활동, 그리고 프로그램에 너무 몰두하여 아이들과 농장 그 자체 사이에 형성되어야 할 필수적인 관계를 놓쳐서는 안된다.

#### ▷ 아동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에서 갖추어야 할 하드웨어

-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장을 확보해야 한다.
- 아동과 함께 하는 사회적 농장에는, 아이들이 배우고 설 수 있는 실내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론 교육을 하거나, 농작업 시작 전이나 종료 후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날씨가 덥거나 추워서 혹은 비나 눈이 와서 농작업이 어려울 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 농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 공간을 따로 두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구마다 놓을 장소를 정하고, 라벨에 명칭을 적어서 붙이기도 하고, 보관에 필요한 설비를 만들 수도 있다.
- 화장실이나 세면대, 급수대 등 활동 중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와 마실 물을 비치해 둔다.
- 야외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찰과상을 처치하고, 해열제나 소화제 등 비상 약품을 구비한 구급상자도 비치해야 한다.

## <참고> 농장과 학교 협업 교육 개발과정<sup>7)</sup>

참고로, 노르웨이 학령기 아동 대상 농장 활동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농장과 학교 간 협력 개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교육훈련 과정은 참여자들의 만족스러운 학습과 결과를 위한 전제 조건은 그들 자신의 활동 경험과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참여자 자신의 경험과 프로젝트 아이디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 자료는 그들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접근 가능한 언어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작업장에서 코스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과 관련한 폭넓은 컨설팅이 제공된다.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 ① 농부와 교사의 협력

농부들과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한 농장에서의 교육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 이것은 농장과 학교 모두에서 프로젝트와 교육 활동의 기반을 찾는 것이다. 자원과 욕구 평가를 통해 농장과 학교는 공동 프로젝트에 보완 사항 및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

### ② 공통 비전 수립

교육 활동의 목표와 요지는 농부와 교사가 개발해야 하는 농장과 학교 모두의 비전에서 출발점을 잡는다. 농부는 경제 발전과 농업의 전통과 가치를 전달하는 것, 농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활동과 적절성을 찾는 것 등에 관심이 있다. 반면, 교사들은 어떻게 농업을 통해 배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할지에 관심이 있다. 코스는 각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와 농장의 공통 비전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둔다. 지역 지식의 활용과 경험적 학습, 지역 정체성의 재구성 사이의 연결은 그러한 비전을 위한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 ③ 실행(Practical Implementation)

1년 동안 코스에서 농부와 교사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초기 단계를 실행하고,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프로젝트의 전제 조건 및 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예를 들어, 농장, 농장의 생산물, 학교 커뮤니티와 학교 운동장 등에 대한 설명). 코스가 끝날 때마다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따라서 코스 진행의 핵심은 개별 프로젝트의 내용과 각 세션 사이에 수행한 작업을 통해 얻은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교육적 노력을 구현하고 평가함으로써 교사와 농부는 교육 자원으로서 농장을 활용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다.

---

7) Jolly, J. & Krogh, E. (2007)를 요약 발제하였음.

또한 의도는 참가자들의 실제 경험의 스펙트럼이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성찰을 위한 공통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 ④ 경험학습(Experimental Learning)

코스는 참여자와 학생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경험학습이 원칙이다. 개별 프로젝트의 개발과 함께 실제 작업을 통해 그들만의 경험 기반을 만든다. 경험학습의 원칙은 학생들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왜 과학이나 수학과 같은 이론 과목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경험학습은 커리큘럼 작업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소위 “거꾸로 된 커리큘럼(the inverted curriculum)” 세션에서 참여자들은 그룹으로 함께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 다음 작업을 단계적으로 분류하고 주요 자격 및 사전지식을 분석한다. 그다음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주(state)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부분과 주제를 살펴보고 관련된 부분을 찾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교사들과 농부들은 커리큘럼 모든 부분에 친숙해지고, 분리된 주제에 맞는 작업을 구성하는 대신 아이들이 농장에서의 실제 활동을 통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계획하는 방법을 배운다.

코스는 농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방법이나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예술(예: 노래, 그림, 색칠 등)과 수작업(화환 만들기, 타르 제거하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⑤ 긴밀한 자문(Close Advisory Work)

기관과 각 프로젝트의 재정제에 대한 조언과 상담은 코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세션 중간에 자문을 활용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를 보내면 다음 세션 전에 조언자가 그것을 읽고 코멘트를 해 준다.

#### ⑥ 다양한 연령대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농장에서 성공적인 작업은 각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접근과 그에 적합한 업무를 찾는 것에 달려있다. 각 세션에서는 연령별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그 후 참여자들은 그 연령대의 욕구 및 이해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습을 한다. 이것은 농부들과 교사들이 농장에서의 작업과 커리큘럼의 요구사항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세션을 설계할 때 아동의 연령 관련 욕구 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참고문헌

- Jolly, J. & Krogh, E. (2007). The farm as a pedagogical resource – Health and learning from farm activities for school children in Norway.
- Life LAB (2016). How can I possibly manage 30 kids outdoors in a garden?. [www.lifelab.org/outdoor-management](http://www.lifelab.org/outdoor-management).
- Teaching in Natures's Classroom – Principles of Garden-Based Education. <https://www.teachinginnaturesclassroom.org/> by Nathan K Larson (Author), Becky Hiller (Illustrator), Alex Wells (Contributor)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는

# 땡큐베리팜

2020  
2021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범농장

1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는

# 땡큐베리팜

## CONTENTS

INTRO  
HISTORY  
BUSINESS  
SOCIAL FARMING  
MISSION  
NETWORK  
PROGRAM

2

## 세대 나은 건강한 농부의 꿈

헝클베리팜은  
세대 나은 10년차 농부 임정훈,  
여피다 농부가 된 최선의 부부가 운영하는  
논산시 가야곡면의 작은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건강한 농부가 정성껏 키운  
무농약 인증(2016-2021) 블루베리를  
**지역 로컬푸드 매장**과 **플리마켓**,  
**선주들 · 후출하 방식**으로 직거래 판매합니다.  
직접 키운 블루베리로 **케이크**와 **분말**,  
우리지역 쌀을 이용한 **블루베리 연잎밥**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열매가 영글고,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뿌리로 땅의 힘을 모아  
다음해를 준비하는 블루베리나무와 함께  
농부의 꿈도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



## ‘농장이 놀이터가 되어도 좋겠다’는 마음

헝클베리팜은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는 농장**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놀이터가 되고,  
지역 농부들과 주민들의 배움터가 되고,  
청년과 도시인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선물하는 엄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고군분투하지만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며  
나누는 기쁨을 배웁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공유와 연대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 HISTORY

# 우직하게 걸어온 8년의 시간



### 2015

귀농과 함께  
볼루베리 농장 조성  
논산시 7가마면 12,000평  
볼루베리 프록 5,000주 식재

### 2016 ~ 2017

명류베리팜 사업자등록  
2016.3.20  
무농약 인증  
팜팍틱&볼루베리 수확  
체험농장 시작  
팜팍틱 교육 수료  
농촌체험지도사 취득

### 2018

볼루베리연일밭 개발 특허출원 신청  
볼루베리연일밭  
우리말가공식품대전 디자인상 수상  
대한민국향토음식문화대전  
해당수산물장관상 수상  
농부책방 <북바라봄논산> 오픈  
북앰팜팍틱 Book&Farm Party 개최

5

## HISTORY

# 우직하게 걸어온 8년의 시간



### 2019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교육농장 지정  
명류베리팜 사회적농업  
비전 워크숍 개최  
청 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협동조합 설립  
청 소년정원학교 프로그램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충남대학교 영농창업단  
복지원예사 실습농장  
논산시농업기술센터  
치유형농장 시범사업 선정

### 2020

같이함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명류베리팜 농업회사법인 설  
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사업 선정  
충청남도지사 표창수상  
'같이함께 사회적농업 공동  
체' 구성 및 협력농장 MOU체  
결  
같이농사짓고함께돌보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작했습니다>발행

### 2021

도시농업관리사,  
화훼장식기농사 자격 취득  
무농약 인증 2016-2021  
친환경 택배포장재 도입  
공유농장 <팜팍스탁 조성>  
명류베리팜 개발  
[다시쓰다] 운영

6

## HISTORY

# 우직하게 걸어온 8년의 시간



### 2022

로컬푸드교육센터 품  
교육농장 지정      명류베리팜 사회적농업  
비전 워크숍 개최

청 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죽협동조합 설립

청 소년정원학교 프로그램      복지원예사 자격증 취득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      충남대학교 영농창업단  
복지원예사 실습농장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시농업기술센터  
치유형농장 시범사업 선정

### 2020

같이할께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명류베리팜 농민회사법인 설  
립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사업 선정

충청남도지사 표창수상

‘같이할께 사회적농업 공동  
체’ 구성 및 협력농장 MOU체  
결

같이농사짓고함께돌보는  
충남형 사회적농업 시작했습니다>발행

### 2021

도시농업관리사,  
화훼장식기능사 자격 취득

무농약 인증 2016-2021

친환경 택배포장재 도입

공유농장 <팜팍스탁 조성>

명류베리팜 개발

[다시쓰다] 운영

7

## BUSINESS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명류베리팜

01

무농약 블루베리 생과

가공식품 판  
매



8

##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땡큐베리팜

### 02

체험농장 운영



9

##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땡큐베리팜

### 03

공유농장 <팜타스틱> 운영



공유정원  
농업생산활동  
치유정원



공유주방  
소셜다이닝  
로컬푸드 쿠팡글래스



공유공방  
지구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10

## 느려도 알차게 영그는 땡큐베리팜

### 04

로컬푸드 ·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운영



언니네농장

로컬푸드  
SNS 플랫폼



다시쓰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땡큐베리팜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불필요한 포장과 스티로폼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농장을 지향하며 일회용 티슈 대신 면 타월, 종이컵 대신 개인 컵,  
플라스틱 그릇 대신 스테인레스 용기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합니다.

11



“ 처음에는 귀농 자체를 반대했지만 결국 땡큐베리팜이라는 우리 공간에서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어른들에게도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블루베리 농사는 잘 짓지 않아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가는 즐거움이 생각보다 큼니다.

우리 지역의 좋은 변화에 함께 한다는 보람도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포장재도 줄이고, 쓰레기도 줄이고,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건강한 블루베리를 키우는 농장에서 '지구를 지키는 땀큐베'

#### SOCIAL FARMING

## 땀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시작했습니다!

2019

충남 논산시에 기반을 둔  
농장, 가공기업,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서치유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활동가들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등  
지역에서 나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로컬 기획자, 사회적농업 농장,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땀큐베리팜 사회적 농업의 미션과 비전,  
단계별 추진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땡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시작했습니다!

2020

논산농업인네트워크 우리가족협동조합과  
농부들의 배움터 삼삼오오학교 논산이 만나  
'같이함께 사회적농업 공동체'를 구성.  
협력 농장을 발굴하고  
2020년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에 선정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원학교, 청소년 시골살이학교 등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프로그램,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정원학교와 소셜다이닝,  
사회적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적농업 배움터 <어서와!사회적농업은처음이지>를  
자체 기획, 운영했습니다.



15

## 땡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시작했습니다!

2021

충남형 사회적농업 2년차에는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확대 실시에 따라  
지역복지와 결합한 네트워크 중심의 공동참여로  
노인 돌봄을 확대하고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합니다.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장년 여성농업인을 위한 원예 프로그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유 주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

## 같이 농사짓고 함께 돌보자

### 비전 VISION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담아 연대하고  
지역에서 신뢰받는 사회적 돌봄·교육 공동체로  
성장하며 농업 기반 커뮤니티 케어 정착에 기여한다.

### 추진전략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유정원·공유주방·공유공방으로 구성된  
공유농장을 조성,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농업활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한다.

### 사업방향

돌봄을 실현하는 사회적 농장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직접적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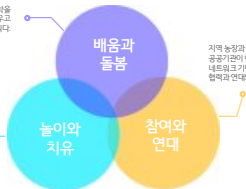
17

## 행동 철학

땀큐베리팜은 '같이 함께 돌보고 배우며 나누자'를 행동철학으로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사회적농업의 가치와 철학을  
공동체가 함께 배우고  
배움의 자원으로 돌봄을 실천합니다.

우리의 돌봄은  
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치유하는  
일상의 즐거움을  
만듭니다.



지역 농장과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기반을 만들고  
협력과 연대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18

## NETWORK

### 땡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로컬푸드 판매 및 메뉴개발

사회적농업 협력농장  
운영주체

전국협력네트워크

사회적농업 교육 및 홍보, 선진지 탐방, 판  
로개척, 예술가 지원, 연구보고서 등

사회적농업 지역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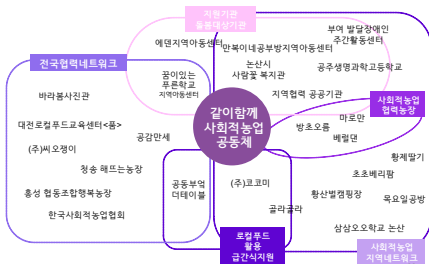
대상자 발굴,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 협업, 홍보

지원기관 돌봄대상 기관



## NETWORK

### 땡큐베리팜,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 팽귤베리팜

##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팜

같이 함께 돌봄 배움 나눔



돌봄



치유



교육



체험



네트워크

21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청소년을 위한 농업 활동 기반의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농업생산 활동과 원예활동을 운영 합니다

파종, 재배, 관리, 수확 등 계절별 경작활동으로 농업과 농촌생활을 이해하고, 반려식을 키우기,  
틀밭 가꾸기 등 원예활동은 청소년의 정서 순화, 갈등 해결, 자존감 향상을 돕습니다.

공유주방 완공으로 2021년부터 직접 수확한 농산물로 같이 요리하고 함께 나누는  
소셜 다이닝 '같이 먹자 품'과 연계 해 운영합니다.

22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23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24



###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25



### 같이 함께 돌봄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26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꽃



27



### 같이 함께 돌봄

##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농촌지역 여성과 중년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가야곡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한  
원에 프로그램입니다.

가드닝 기초, 화분만들기, 식물 재배하기 등  
단계별 원예교육과 공동정원 만들기,  
마을정원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하는 활동가로  
성장,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합니다.

28





농업 치유 교육 체험

같이 함께 돌봄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29



농업 치유 교육 체험

같이 함께 돌봄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30



농업 치유 교육 체험



같이 함께 돌봄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31



농업 치유 교육 체험

같이 함께 돌봄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32



농업 치유 교육 체험

### 같이 함께 돌봄

## 시민 정원학교 가야곡 사는 나무



33



농업 치유 교육 체험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시골살이학교 엄마에게 휴가를

청소년 시골살이학교는 농촌의 자연과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농촌체험과 여행을 함께 즐기는 **숙박형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2박 3일간의 농촌 체험 캠프를 통해 자연, 문화 자원의 경험하며 농촌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도록 지원합니다.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해 도시 청소년들에게도 농촌체험을 통한 배움과 돌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34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시골살이학교 엄마에게 휴가를



35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시골살이학교 엄마에게 휴가를





### 같이 함께 돌봄

## 청소년 시골살이학교 엄마에게 휴가를



37



### 같이 함께 돌봄

## 소셜다이닝 같이 먹자 쯔!

같이 먹자 쯔!은 지역농장을 공유주방으로 활용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네트워크 활동가와 로컬기획자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입니다

로컬기획자에게는 농촌지역생활과 더 가까워지도록 돕고, 지역 농장과 농부들에게는 생산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메뉴개발로 체험·교육농장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1년 공유주방 완공과 함께 청소년 돌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해 마을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긴급 재난 시 취약계층을 위한 급·간식 지원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8

같이 함께 돌봄

소셜다이닝

같이 먹자 쫘!



39

같이 함께 돌봄

소셜다이닝

같이 먹자 쫘!



40

같이 함께 배움

## 사회적농업 배움터



어서와!

사회적농업은 처음이지?

사회적농업 이해를 위한 기초과정으로 사회적농업의 가치와 철학을 배우는 이론교육과 농촌 사회적경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사회적농업을 이해하는 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입니다. 협력 농장들의 사회적농업 기반 조성 및 실천 태도를 마련하고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사회적농업 선진지 탐방

사회적농업 활동 확산을 위해 지역 협력 농장과 함께 사회적농업을 실천하는 우수농장과 마을을 탐방합니다. 현장 교육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농장 역량 및 사회적농장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갑니다.

월간 로컬엔커뮤니티

커뮤니티케어, 로컬컨텐츠, 동물복지, 지역관광 등 사회적농업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주제로 전국의 사회적기업, 로컬플랫폼,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농업 공동체역량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농장을구축전략수립을 모색합니다



같이 함께 나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제로웨이스트  
플랫폼

다시쓰다

사회적농업  
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공유농장(팜타스틱)에서는 사회적농업 프로그램으로 지구를 지키는 지속가능 체험 프로그램과 사회적농업 협력농장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경제로웨이스트 플랫폼 '같이 쓰자 품'을 운영합니다.

사회적농업 정보공유, 사업 협약,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사회적농업 공동체의 참여와 연대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회의체를 구성, 운영합니다. 12개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모여 사회적농업 사업 방향과 대상자 발굴을 논의하고, 네트워크 회원 가족들을 초대해 사업적 농업 활동성과를 공유합니다. 2021년부터 전국협대네트워크와 함께 사회적농업 교육 및 홍보, 판로개척 예술가 지원, 연구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 THANK YOU



010-4330-4987



skysky1004@daum.net



thankuberry



**육곡리농장**

충청남도 논산시 가마곡면 육곡1리 16-37

**강청리 농장**

충청남도 논산시 가마곡면 강청리 245-8



43





### 청년마을(주) 사명은

초고령화 과소화하여 사멸해가는 농촌에

도시에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이 꿈을 찾아 농촌으로 이주하고

이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농촌에 정착하여 새로운 농촌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결과적으로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여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주체 형성을 돕는 일이다.

# 사람과 물자가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를 꿈꾸며 일구온 마을



## 살고 싶은 농촌

## 사람과물자가 순순환하는 마을

### 01.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자긍심의 회복-가치의 전환
2. 새로운 삶의 생태계
3. 교육, 문화, 의료, 복지
4. 이동권 보장
5. 문화가 있는 마을

### 02. 사람의 선순환

1. 젊은 층의 유입
2. 사회적경제 생태계
3. 자아성장과 실현 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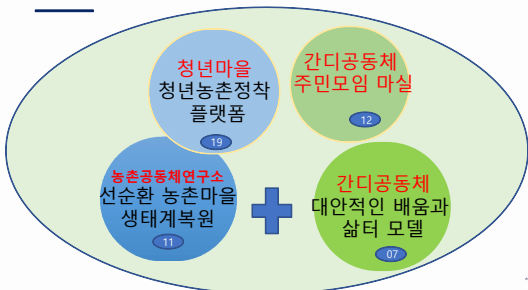
### 03. 자원의 선순환

1. 관계망에 의한 생산과 소비
2. 기본소득
3. 자원의 선순환
4. 생태주의적 관점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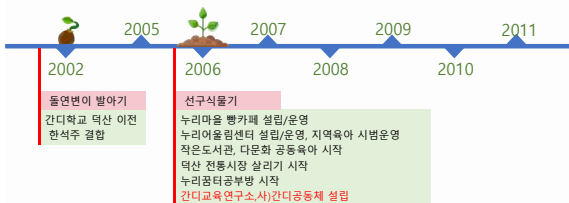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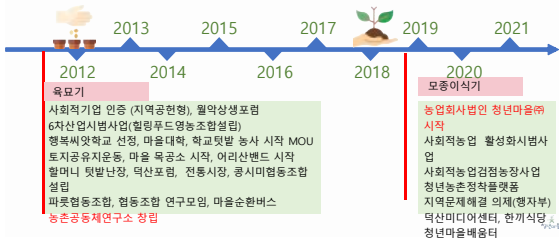
## 덕산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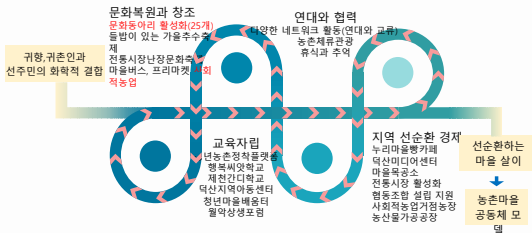
## 덕산의 현재는 모종을 정식하는 시기



## 덕산의 현재는 모종을 정식하는 시기



## 사람과 자원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농촌마을공동체 복원



# 사람이 선순환하는마을을 위한 집토끼 잡기 프로젝트

영산고





농어촌희망재단 프로그램 공모사업

외부 공모사업자금 사례

<b>목표</b>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역량 개발
<b>대상</b>	덕산면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덕산 누리마을 꿈터 학생 및 학부모
<b>기간</b>	2014~2018년
<b>종류</b>	도예교실 / 목공교실 / 바리스타 수업 / 재과계통 제철/텐드/ 축구교실 등



학교텃밭활용201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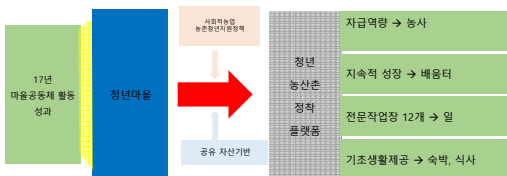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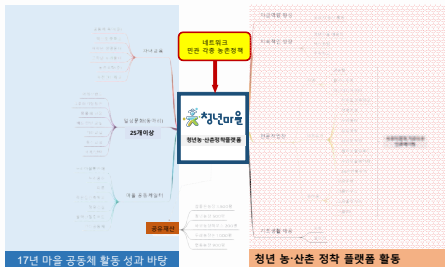




## 청년농촌정착플랫폼



## 청년 농·산촌 정착 플랫폼 구상도



## 청년농촌정착플랫폼 청년마을 시설향황



청년마을

## 청년마을의 사회적 농업 활동

사회적농업활성화 시범사업, 거점농장

### 1. 청년 농부프로그램

- 1) 청년농부 프로그램 - 1회 4시간 주4회 6명
- 2) 바보농사 작업장 - 덕산에 정착한 귀촌인의 만족도 증가와 청년연도
- 3)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 다시 덕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제공

### 2. 청년마을 배움터

### 3. 청년마을 작업장

청년농산촌정착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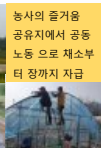
청년마을

## 청년농부



청년농부

## 바보농장



농사의 즐거움  
공유지에서 공동  
노동으로 채소부  
터 장까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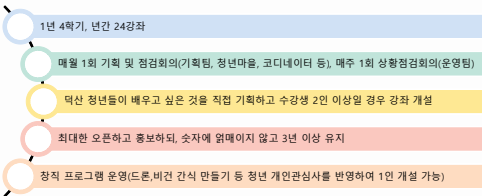
## 덕산초등학교 농사체험



## 청년마을 배움터 프로그램

농촌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청년이 배우고픈 내용을  
스스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농촌,  
필요하면 배울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

## 마을배움터는..



영남대학교  
YONSEUNG

## 청년마을 배움터



## 작업장 활동

청년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발전시켜 자신의 일이 되도록  
 작업장(장인, 전문가)을 만나 삶을 배우고 기능을 익혀서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창업하여 독립하는 것을 돕는 과정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은 문화를 누리며 지원자가 되고  
 청년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정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촌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년 농촌정착 플랫폼 작업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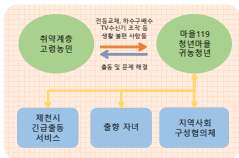
구분	청년마을작업장	작업내용
직영	영농팀	영농활동
	덕산미디어센터	유튜브 등 영상컨텐츠 제작
	월악소주방	로컬푸드
제휴/네트워크	작은집건축학교	5평 집 짓기
	셀렘 공방	비누, 천연화장품
	누리꿈터	지역 교육
	간디학교	대안 교육
	죽달이 공방	DIV목공
	심심한책방	만화, 그림
	월악산힐링푸드	농산물 가공
	누리마을빵카페	제빵, 요리
	청년누리	귀농학교
	관광두레	농촌관광, 공정여행
상상중	리움하우스	의류 리폼 및 수선
	소풍물직거래	도농 교류, 제품 판로 개척
	마을119	마을 복지
상상중	갤러리 오지	농촌 예술 복지



마을대  
 학 전공  
 교실  
 발전

## 마을119(예정)

【서비스 소개】



1. 관계 복원을 통한 농촌 행복지수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2. 고령 농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지역 내 청년들이 해결하여 세대 간 관계 회복
3.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친밀도 향상 도모,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축
4.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일정한 역할이 주어짐으로서 농촌공동체 주민으로서의 역할과 이유 부여
5. 귀촌사례 제시로 도시 청년 유입 유도, 농촌의 지속성 향상
6. 향후 마을119 사례를 전국 농촌지역에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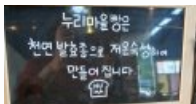
마을119가 지역 취약계층의 사소한 생활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큰 문제는 전문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며 교류하는 서비스

## 예비사회적기업가 -만화 그림 작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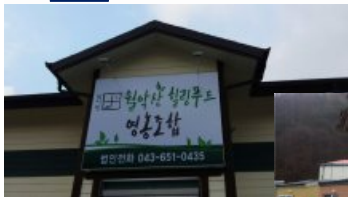


작업장4지역공헌형 사회적기업-누리마을빵카페



영남대학교  
농촌진흥청

농촌마을 사회적 경제 구축 - 일자리 창출



작업장6 농산물가공

작업장7 작은집건축학



영남대학교  
농촌진흥청

## 유입프로그램3

유입프로그램3

청년유입 프로그램

<b>인테나 포럼 프로그램</b>
도·시청년 활약마을 7월 상·하 도·시청년 단체 (200여)와 연계 3월 12명 5, 6, 8월 청년마을
<b>농촌에서 살아보기</b>
사회적경제 마을 5개월 / 4명 4~8월 익산농업진흥단지 - 청년마을에서
<b>청년귀농 장기교육</b>
귀농교육 / 8명 4~8월 청년농민학교 + 청년마을에서
<b>기존 활약마을 관할 청년</b>
기존 청년마을 방문 교육 청년마을 관할 인근 청년

청년귀농·귀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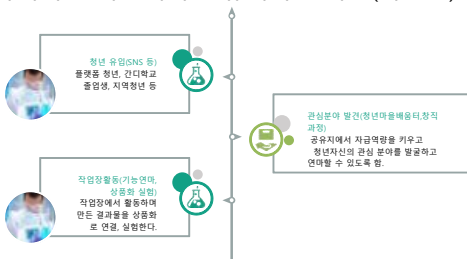
<b>귀농·귀촌 인턴십 프로그램</b>
<b>주요</b>
현직 귀농·귀촌 전문가 4명 귀농·귀촌 인턴십 4명 귀농·귀촌 인턴십 4명
<b>현직마을 방문 서비스</b>
귀농·귀촌 인턴십 4명 귀농·귀촌 인턴십 4명 귀농·귀촌 인턴십 4명
<b>11월 9~10월 (6주)</b>
<b>11월 9~10월 (6주)</b>

<b>사회적 경제 기반 창업 귀농· 귀촌</b>
← 청년농산촌창업지원사업
← 청년마을 창업지원 (마을창업농,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 귀농·귀촌
← 사회적경제 기반 인큐베이팅사업
← 주거와 공유주택 제공(최초 1년 무상)

청년귀촌 프로그램

<b>귀농·귀촌 인턴십 프로그램</b>
← 청년농산촌창업지원사업
← 청년마을 창업지원 (마을창업농, 청년농업인, 청년농업인)
← 귀농·귀촌
← 사회적경제 기반 인큐베이팅사업
← 주거와 공유주택 제공(최초 1년 무상)

## 사회적 경제생태계 인큐베이팅 과정(작업장)



사회적경제 기업화  
 사회적경제 생태계에 정착하도록 자립  
 까지 총 5년간 지속적인 지원 제공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형태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협동조합
- 공동체 사업단
- 동아리



네트워크공유로 시장과 판로 개  
 적  
 작업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  
 을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 출시  
 하고 판로를 개척함.



마을공동체 생태계 구성원

청년마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원으  
 로서 전체 2배이내의 임금자, 이상공유  
 기금화 등에 동참한다.



#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Part 1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조직도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현황

구분	직책	회원명	인원
의결권자 (총 32명)	임원	회장	정순해뜨는농장 윤수영
		부회장	여호재남 전명호
		부회장	홍장면니대위원장 이숙자
		총무이사	함달열농조합 박수진
		이사	천여울농조합 임미수
		이사	유정년마을 함석주
		이사	한우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근석
		이사	여민동락 이은경
		이사	삼운 김찬영
	감사	감사	태웅세일 서정훈
		감사	행복농장 최정선
	회원	정기총회 대표팀 참고	21명

- 임원 : 9명  
- 감사 : 2명

## 2022년 사업계획

### 사업계획 순서

1. 행복농장 - 뉴스레터 "사이통신"
2. 청년마을 -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
3. 여민동락-전문가집담회 "콜로키움"
4. 정순해뜨는농장-22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5. 팜플렛 제작
6. 간판 제작
7. 홈페이지 제작
8. 밴드 활성화

# 2022년 사업계획

## 행복농장 - 뉴스레터 "사이통신"

### 1. 뉴스레터 발행형식 공유-논의 및 확정

1	발행 형식	웹진
2	발행처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협동조합 행복농장
3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점농장 협의회</li> <li>- 젊은협업농장 정민철</li> <l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li> <li>-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 이이수</li> </ul>
4	편집과 디자인	시골문화사 박영선, 김세빈

# 제3호안 : 2022년 사업계획

### 2. 뉴스레터 '사이통신' 내용 구성안 공유-논의 및 확정

제목	주제/내용	분량 (200자 원고지)
다양한 사진	(1) 사회적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20~30매 이내, 사진 5매 이내
	- 사회적농업을 다양한 사진으로 담아봅니다.	
	(2) 연필가능성 높은 사업 및 활동	20~30매 이내, 사진 5매 이내
가꾸는 실천	- 사회적농업과 연필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사업 및 활동을 소개합니다.	
	(3) 농장 및 활동 소개, 거점농장	20매 이내, 활동사진
	- 지역별 거점농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농장 및 활동 소개, 활동화살장	20매 이내, 활동사진
	- 활동화살장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나누는 공부	농장 및 활동 소개, 지역서비스공동체	20매 이내, 활동사진
	- 지역서비스공동체의 활동과 실천사례를 소개합니다.	
	(4) 사회적농업 현 (의)국가로(반역)	25~30매 이내
	- 사회적농업과 관련한 전문의 국가로(반역)을 번역하여 공유합니다.	
	(5) 생태자료 현 (의)국가로(반역)	25~30매 이내
전하는 소식	(6) 사회적농업 소식	2매 이내, 활동사진
	- 전국 사회적농업과 관련한 교육, 세미나, 간담회 일정을 안내하고, 다양한 활동 소식을 공유합니다.	

## 2022년 사업계획

### 3. 2022년도 뉴스레터 각 호의 제작일정 및 구성내용별 집필자

내용	3월	5월	7월	9월	12월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목포대학교 김영란	미정	협동조합 행복농장 안병은	농림부 농촌사회복지과장 박은엽
2	충남사회적농업 김기홍	미정	미정	미정	미정
3	홍성 협동조합행복농장	영광 여민동락	원주 사회적경제NW	정송 해뜨는 농장	강화 공세알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정섭/ 사회적농업 국.내외학술자료				
5	소리외간장 초록문연구소 / 자연기반치료 (Nature-Based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to Working Outdoors with Children, Youth, and Families)				
6	거점농장 (거점농장을 포함하여 소속된 농장의 중요활동이나 교육 일정을 안내)				

## 2022년 사업계획

### 청년마을 – 기초공통교육 커리큘럼

#### I 목적

2022년 (83곳의 사회적 농장과 지역서비스 공동체 22곳) 총 105곳의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농업을 실천하게 됨에 따라 공동의 인식과 정체성 확립의 필요에 따라 통합적 공동 기본교육이 필요성이 증대 됨

- 1) 2020년 이후 사회적농업 농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공동학습의 기회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공동 인식 필요성과
- 2) 사회적농업 농장 전체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농업의 정체성 확립,
- 3) 거점농장 협의회의 사회적농업 공동 사업을 통한 사)사회적농업 협의회의 역량강화



전체 교육 목표						
교육 단계	후원	후원: 청나라를 주축, 서단법인 한문서화학회설립				
	장소	조선 CV 센터 등				
	대상	2000년 이후 한말한글 교류와 교류가 후진, 희망유망				
	인원 제한	40명, 각 가정당주에 한명 (비밀유지)				
	남자	주제	한글운동	주제운동	주제의 실제 워크숍	
	4.21	청나라에서 서화학회	한글운동	13사 - 13사	13사 - 13사	
	4.28	한말한글서화학회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5.12	노인문제의 서화학회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5.19	청나라에서 서화학회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5.26	아동문제의 서화학회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한글운동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한글운동: 서화학회설립, 전사, 전장, 전장, 전장</li><li>2. 교육 내용: 각 주제를 서화학회설립으로 설명할 때, 교육내용을 문제들</li><li>3. 주제의 실제: 각 주제를 설명한 신진 및 노인 대표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li><li>주제운동: 각 주제-화자운동에서 설명한 내용과 각 주제-화자 운동</li></ul>				
평가		후원/장가의 후원으로 각 가정당주에 4월21일까지의 평가(교육)				
결과		모든 노인(노인)이 참가한 결과, 모든 참가자는				

여민동락-전문가집담회 "콜로키움"

분야	내용	비고
개념	사회적 농업이란 무엇인가?	
방향성	농업 혹은 환경에서의 사회적 농업 포전 복지 관점에서의 사회적 농업	
실천	정신 발달 장애	사회적 농업의 유익과 실천 경험 - 분야별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연구 - 외부 전문가의 학술적 연구 및 효과성 검증
	노년	
	청년	
	다중취소년	
학술 연구	사회적 농업 학술 연구 분야의 확립(전문가 확보)	별도 논의
평가	사회적 농업 실천에 대한 정책적 평가 기준 마련	별도 논의

## 2022년 사업계획

사회적기업지원사업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장과 영농성황의 향기

### 2022 사회적농업 콜로키움

주최: (사)한국사회적기업협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순차	일정	주최	발탁자	진행자(강연)	참여자(주최/참가자)
1	개회식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영환, 정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2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5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6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7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8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지원사업 주관(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김민호

## : 2022년 사업계획

### 청송해뜨는농장 - 22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 ❖ 박람회 부스 운영을 통한 사회적농업 홍보
- ◆ 사회적농업 포럼 개최로 홍보 및 정보 전달
- ◆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숍 개최로 회원 교류 및 협회 활성화

## 2022년 사업계획

개요	
일시	2022. 7. 8(금)~ 7.10(일)
장소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일원
주최/주관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참석	협회 회원 및 기관 단체 관련 담당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부스 운영</li> <li>- 사회적농업 콜로키움</li> <li>-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샵</li> </ul>

## 2022년 사업계획

세부내용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부스 운영	각 거점농장 별 부스 운영으로 사회적농업 홍보 및 사회적농장 간의 정보 교류
사회적농업 포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까지의 콜로키움 운영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적농업 기본에 관한 발표와 토론</li> <li>- 전문가, 사회적농장 및 지역서비스공동체형 농장, 희망농장, 일반 대중 등 참석 확대</li> <li>- 포럼 참가자들에게 박람회 참관을 유도</li> </ul>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워크샵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 회원 전체가 참가하는 워크샵으로 회원간의 정보교류, 협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 등 사회적농업 발전을 위한 워크샵</li> </ul> <p>*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p>

## 2022년 사업계획

팜플렛 제작	협회 구성 및 사업계획을 홍보팜플렛으로 제작 - 해뜨는 농장
간판제작	회원에게 10만원 상당 협회제작 간판 제작 - 아호 해남
홈페이지 제작	사) 한국사회적농업 협회 홍보 및 활성화
밴드 활성화	사회적농업지원사업협의체 밴드운영 활성화

감사합니다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기 업 명		전 화	
		팩 스	
		이 메 일	
대표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담당자 성명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홈 페이지			
업태 / 종목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서 류	①회원가입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입회비: 100,000원 \*연회비: 100,000원 \*총: 200,000

은행 : 농협) 301-0289-2204-81 (사)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보내실 곳 : werwer0174@naver.com

위와 같이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 개인(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는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과 기업 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사항을 안내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 1.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 정보 수집·이용목적 :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 정보 수집항목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귀하는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가 소식지 등 안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거부 시 온·오프라인 소식지 발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및 제공정보·목적

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사 관리, 조직사업(유통사업, 공공기관 안내 등) 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활용을 위함.	(필수항목) - 개인 : 대표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담당자성명/휴대전화/이메일 - 기업 : 기업명,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업태/종목, 사업자등록번호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단, 다른 법령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사) 한국사회적농업협회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작성종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단법인 한국사회적농업협회 귀중

# MEMO

# MEMO



# MEMO

# MEMO